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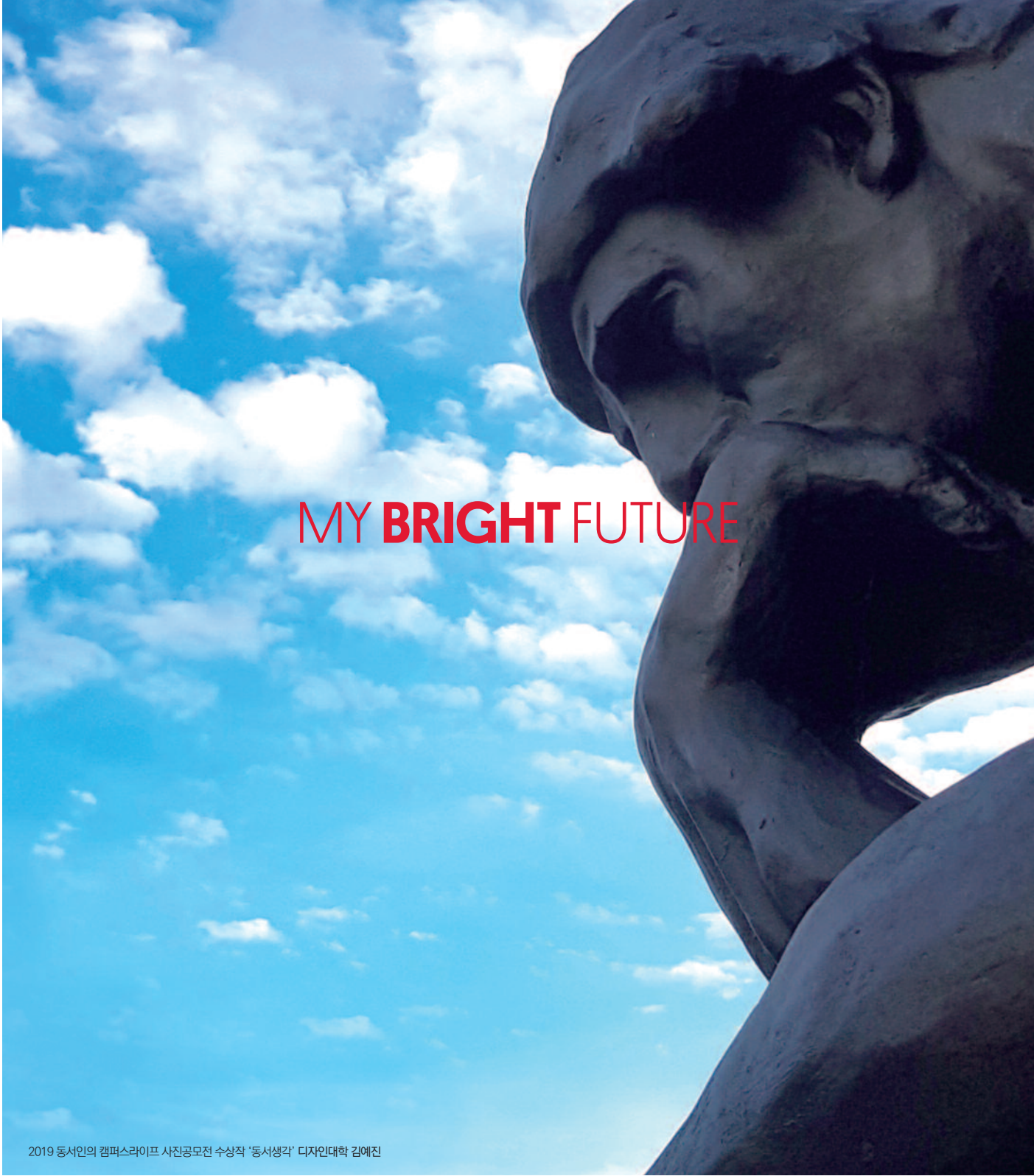
SPECIAL THEME

학교가 현장이 되는 곳, DSU

DSU+ISSUE

DSU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출범
취·창업으로 가는 첫 걸음, 동서대

DSU NEWS



MY **BRIGHT** FUTURE

Special Theme

학교가 현장이 되는 곳,
DSU

06

Insight

DSU 현장형 프로그램 모음.ZIP



10

Report

DSU의 현장형 교육의 결과,
키워드로 다시 보기

12

Close up

뮤지컬 <가야의 노래>,
동서대 교육의 가치와 우수성을 담아내다

16

Best DSU

성치경 교수로부터 듣는
'T.H.E. Only O.N.E. 교육 제대로 알기'



Cover story

최우수작 '동서생각'은
사진 속 푸른 구름처럼 동서인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피어나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강렬한 색 대비와
과감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DSU+ISSUE

20

Topic

DSU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출범
취·창업으로 가는 첫 걸음, DSU

28

Interview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장주영 소장

DSU NEWS

2020 Vol. 376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76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20년 2월 18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디자인·제작 군디자인연구소

DSU+PEOPLE

32

Hot Keyword

프로공모전러가 이야기하는 도전과 성공
빛나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기본기!
동서대 학생들의 내공이 빛어낸 성과

40

Alumni

미국 워싱턴 D.C주 변호사 합격한
차영혜(중국어학과 12학번) 동문

42

Lead to World

직접 다녀온先輩들이 들려주는
미국·중국·일본 SAP
2019 International Culture Night
D-MAP 상하이 동계연수 3박 4일



DSU+CAMPUS

52

Look Into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

56

Love

추위를 녹이는
동서대의 따뜻한 나눔과 교류

61

Focus

세계화를 위한 장제국 총장의 행보

62

DSU Today

동서대 단신



#학교가_현장이_되다

대학 졸업 후, 넘치는 패기와 당당함, 설렘과 두려움,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사회 초년생.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업무 환경과 시스템에
당황해 깨지거나 부딪혀 금방이라도 포기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학교에서부터 현장과 같은 조건과 시스템 속에서
공부해 본다면 어떨까요?
동서대는 근본적으로 기존 대학들과는
다른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현장을 접목한 시설부터 기업들과 연계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학교에서의 배움이 그대로 현장까지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정형화된 틀을 깨는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도전,
동서대가 해왔고, 동서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MEDIA

S

T



MEDIA OUTLET

Communication Studio

Media Studio

Communication Clinic

Media Clinic

Presentation Room

CEO OFFICE

Dept. of Program Planning &

Dept. of Camera Production

Dept. of First Production Su

Dept. of Second Production

Dept. of IMC Strategic Solu

Dept. of Public Relations

Dept. of Creative Solution

Knowledge Island

Creative Island



IFS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고홍보학과 강소현 학생

“저는 3학년 2학기 때 IFS1 수업을 통해
사상경찰서와 협업하여 피싱사기범죄에
대한 캠페인 광고를 제작했고, 성모여고와
함께 동서대를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나 하는
실제 업무를 취업 전인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힘들죠.

IFS수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뤄낸 성과들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짜릿합니다. 이 실전 경험이 취업 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DSU 현장형 프로그램 모음.ZIP
취향저격 현장형 인재

**FIELD
+
TALENTED PERSON**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시대. 짜여진 교육시스템으로는 학생의 꿈과 시대의 요구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동서대학교의 인재를 위한 다양한 실무형 프로그램은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자신에게 딱 맞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응원하고 있다.

#인재의조건 #추진력 #팀플은_내가_잘하지
#IFS_In_school_Field_System

기업 프로젝트를 내 손으로! 강의실에서 현장업무를 생생히

● 학교 안에서 체험하는 실제 기업 프로세스

<IFS(In school Field System)>

2014년 특성화 사업을 통해 시작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IFS는 이름 그대로 ‘학교 내에 펼쳐진 현장 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인 교내 현장시스템으로 대학 안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상의 실무 경험을 거둘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다.

동서대는 강의실과 현장을 접목한 미래형 강의실을 구축해 IFS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형 강의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방법을 벗어나 현장형 지도로 이루어진다. 담당교수가 실제 기업의 책임자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나가는 식이다. 학생들은 IFS를 통해 수업 내용을 풍부하게 제공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콘텐츠 중심의 명확한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가장 잘 뒷받침 해주고 있는 미래형 강의실 중 하나가 ‘미디어아웃렛’이다. 미디어아웃렛은 2014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개설된 ‘강의실과 현장이 접목된 미래형 강의실’이다. 미디어아웃렛에는 실무 교육이 가능한 방송콘텐츠 제작사,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대행사, 미디어 플랫폼을 실제 회사와 동일하게 구축해 학생들이 사원이 되어 직접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낸다. 더불어 현장시스템 활동성과에 따라 특별장학금과 공모전 출품, 문화 체험 등을 전폭 지원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스펙 향상을 돕는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학과들과 산업체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미디어아웃렛의 IFS 수업은 학생들이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하는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인재의조건 #열정 #도전의식 #팀워크
#클래스셀링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곧 채용으로! 기업 맞춤 교육과정

● 기업에 판매하는 나의 아이디어 <클래스셀링>

클래스셀링은 ‘기업에 수업을 판다’는 독특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과목을 개설해 지도교수와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기업이 구매하는 ‘주문식 판매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 학기별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업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수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판매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클래스셀링과는 다른 ‘JOB클래스셀링’은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 클래스셀링에 참여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신입사원 직무 교육 교과목을 개설, 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업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두 클래스셀링은 특정 기업(기업군)에게 수업 또는 결과물을 판매해 학생의 취업은 물론, 기업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동서대의 우수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미래 <캡스톤디자인>

1~2학년 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학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

여 스스로 기획,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로 구성하는 팀 과제인 '일반형 캡스톤디자인'과 기업체(가족회사)가 공동 참여하는 팀 과제인 '기업연계형 캡스톤디자인', 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아이

템을 모색하는 '사회 맞춤형 캡스톤'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동서대는 매년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한 캡스톤디자인 과제들을 모아 전시하는 '캡스톤디자인 FAIR'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이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통해 대내외 공모전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인재의 조건 #창의력 #반짝이는_아이디어
#실전창업체험_프로그램

나의 상상이 현실로! 창업의 꿈을 가진 인재라면

현실 창업의 모든 것, <실전창업체험 프로그램>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 창업까지 이어주는 동서대만의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다.

약 6개월간 창업캠프 및 스타트업 특강, 팀별 1대1 멘토링, 시제품 제작에 이어 마지막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까지 거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실전창업체험 프로그램은 실전 창업체험 프로젝트 참가팀을 모집한 뒤 수준별 맞춤형 창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준비 활동(1단계)과 창업체험 활동(2단계)을 진행한다. DSU Make 창업경진대회 이후에는 실전창업 활동(3단계)인 모의 클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올해는 특히 창업팀 경진대회를 통한 시제품 개발, 전문가 멘토링, 시장검증, IR피칭, 모의 클라우드 펀딩 등 단계별 실전창업체험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돼 대학의 창업 붐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주목된다.

동서대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의 우수 졸업작품 및 창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전형 창의교육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인재의 조건 #글로벌_인사 #넓은_오지랖
#해외_취업을_위한_로드맵

나는 글로벌 인재! 바로 해외로 취업하고 싶다면?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 <해외 취업을 위한 로드맵>

동서대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인재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서대의 해외 취업 로드맵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졸업 후 해외취업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동서대의 특성화 분야인 국제화와 디자인,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2, 3학년 때 해외취업동아리, 해외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취업의 꿈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해외인턴 과정인 디자인전공의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산업그래픽 디자이너양성, 마케팅 전공의 무역물류 프론티어 양성 등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기업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다.

동서대가 해외 취업에 강한 데는 'K-Move스쿨'의 역할도 크다. 학생들을 교육시켜 해외에 보내 글로벌 무대에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K-Move스쿨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3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8~9개월 동안 관련 직무·어학·필수·소양교육을 받은 뒤 미국, 일본 현지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K-Move 스쿨 학생들에게는 국내의 교육비 전액과 교재비, 시험응시료, 비자수수비(일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Keyword Rewind

DSU의
현장형 교육의 결과,
키워드로 다시 보기

요즘 대학 공모전이나 대회의 결과를 보면

‘동서대’의 이름은 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오로지 팩트로 그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동서대.

지금부터 보여줄 건 팩트다. 자랑도 과장도 아닌.

COLLABORATION

사상경찰서 홍보영상과 포스터 제작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촬영 근절에 나서고 있다.

사상경찰서가 지난 11월 냉정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설치한 불법촬영금지 대형포스터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 포스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있다. 전문 광고업체가 아닌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먼저 사상경찰서 측에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 결과물은 광고홍보학과의 교내 실무중심교육인 IFS를 통해 만들어졌다. IFS는 학교 안에서 이론을 배우면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최신 교과과정이다. 학생들은 사상경찰서 경무과와 협업하여 1분 50초 분량의 사상경찰서 홍보영상과 ‘아주 작은 카메라도 사상경찰서는 찾아낸다’라는 콘셉트로 불법촬영금지 포스터 3종을 제작했다.

#IFS2수업 #자기주도적 #사상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문화 콘텐츠
1st Class 대학

창작뮤지컬 ‘가야의 노래’

그동안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역사를 다룬 작품들은 많았지만 ‘가야’에 대해 다룬 예술 작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가야는 동서화합의 상징적 역사를 품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문화를 보유한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역사의 일부다.

동서대는 이에 주목해 ‘가야의 노래’(오세준 작·장우성 연출)라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2019년 12월 7~8일 이틀간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웅’에서 선보였고,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동서대 LINC+사업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이번 공연은 뮤지컬과와 디지털콘텐츠학부, 그리고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제작에 참여했다. 뮤지컬과에서는 학생과 졸업생이 각 배역을 맡아 열연을 해주었고,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는 직접 대본을 분석해가며 다양한 무대영상 기술을 구현하였다. 또한 의상은 패션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짧은 기간 동안 밤을 새어가며 직접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IFS시스템 #뮤지컬과+디지털콘텐츠학부+패션디자인학과

#유료객석점유율 90%



모듈형 캡스톤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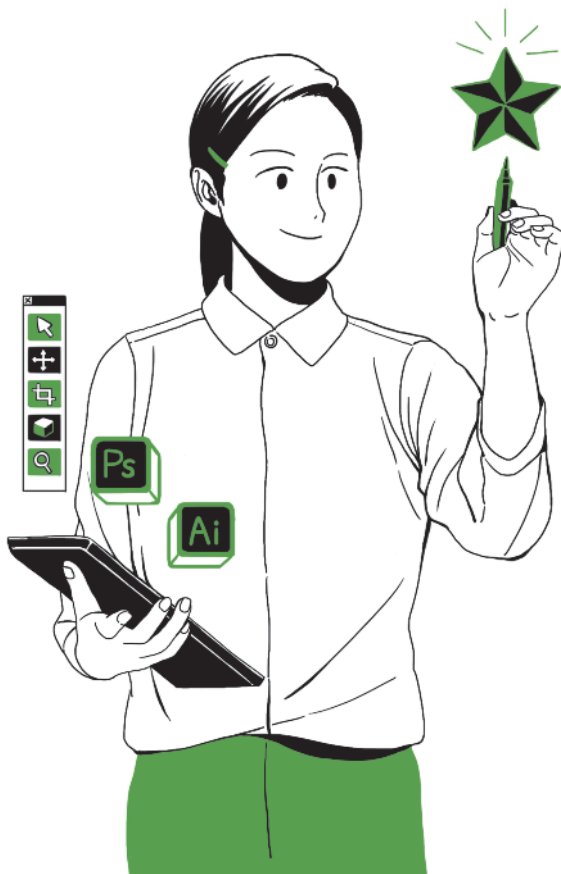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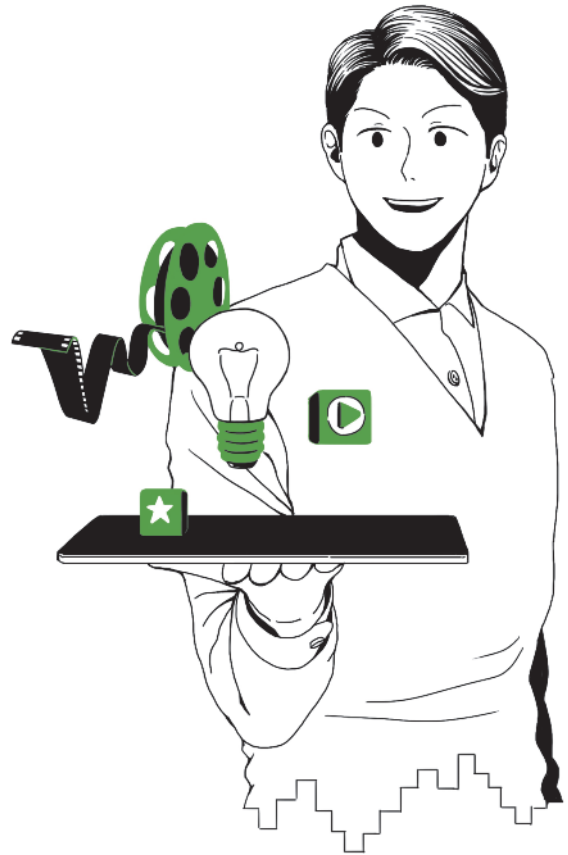
비주얼 아트-테크를 휩쓴 동서대의 위엄

'비주얼 아트-테크 2019'는 컴퓨터 그래픽·특수촬영·특수분장·미술 등 각각의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화려한 시각효과를 구현하는 비주얼 아트 테크니션(Visual Art-Technician) 발굴을 위한 공모전이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비주얼 아트-테크 2019'에서 대상, 최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공모전에서 본선에 오른 15개 작품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1월 21일 진행된 현장투표(상영회)를 통해 수상 작품이 정해졌으며 11월 22일 대전 호텔 ICC 컨벤션 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선정된 작품들은 LINC+사업단 모듈형 캡스톤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학부에서 진행한 수업 결과물이다. 대상(상금 1,000만 원)을 수상한 작품은 '사이버펑크 시티(Cyberpunk City)'라는 작품이며, 최우수상(상금 200만 원)은 '레고 레이스(Lego Race)'라는 작품이 수상하였다.

#디지털콘텐츠학부_VFX트랙

#비주얼아트테크니션(Visual_Art-Technician)_발굴

#국내_최대_VFX공모전



CREATIVE SIGN DESIGN

부산·울산 옥외 광고 공모전서 빛난 그들의 작품

각 시도에서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개발로 옥외광고 수준을 높이고, 우수광고물 전시 및 홍보를 통한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다양한 공모전에서 동서대 학생들의 작품이 빛났다.

최근 부산·울산에서 각각 열린 옥외광고 공모전에 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작품이 대상을 포함한 각종 상을 휩쓸며 실력을 독특히 뽐낸 것이다. 수상 작품들은 동서대 LINC+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GD루트 '컨셉추얼플랜닝' 수업을 통해 완성됐다.

즉 수업과 공모전을 연계한 결과물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디자인대학_GD(Graphic Design)루트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개발 #대상_은상_동상_장려상_수상

뮤지컬 <가야의 노래>, 동서대 교육의 가치와 우수성을 담아낸다

동서대 교수와 학생들이 만든 창작뮤지컬 '가야의 노래'가 지난해 12월 7~8일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틀간 진행된 공연은 유료객석점유율 90%를 기록하며 대성황을 이루었고, 관객과 평단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이번 뮤지컬 <가야의 노래>의 성공은 뮤지컬 작품 하나의 성공이 아닌, 동서대 교육 시스템과 학생 및 교수진, 나아가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한 단계 성장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가야의 노래를 통해 동서대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에게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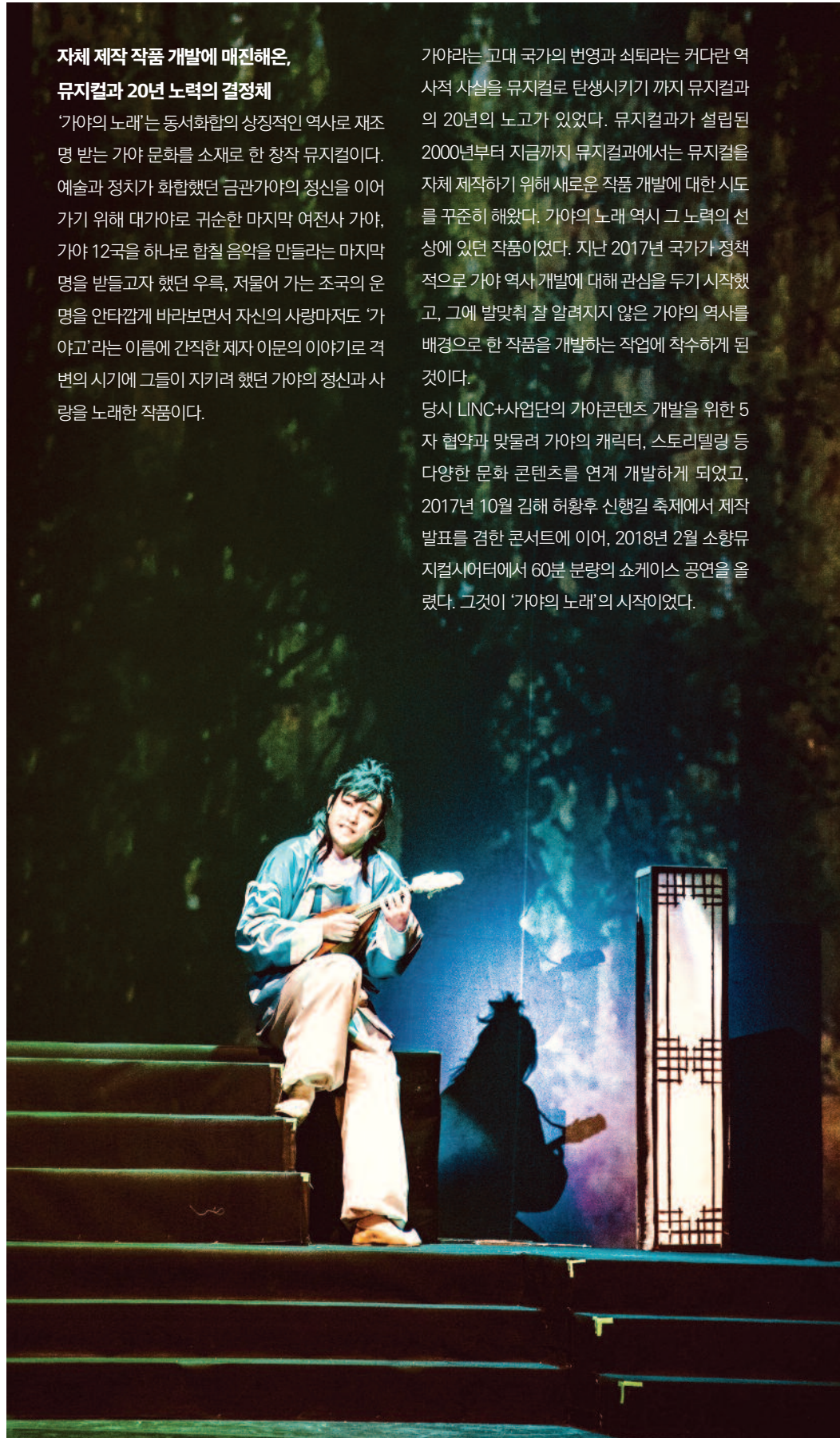


자체 제작 작품 개발에 매진해온, 뮤지컬과 20년 노력의 결정체

‘가야의 노래’는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역사로 재조명 받는 가야 문화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예술과 정치가 화합했던 금관가야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대가야로 귀순한 마지막 여전사 가야, 가야 12국을 하나로 합칠 음악을 만들라는 마지막 명을 받들고자 했던 우륵, 저물어 가는 조국의 운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랑마저도 ‘가야고’라는 이름에 간직한 제자 이문의 이야기로 격변의 시기에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야의 정신과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야라는 고대 국가의 번영과 쇠퇴라는 커다란 역사적 사실을 뮤지컬로 탄생시키기 까지 뮤지컬과의 20년의 노고가 있었다. 뮤지컬과가 설립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뮤지컬과에서는 뮤지컬을 자체 제작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 개발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가야의 노래 역시 그 노력의 선상에 있던 작품이었다. 지난 2017년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야 역사 개발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춰 잘 알려지지 않은 가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당시 LINC+사업단의 가야콘텐츠 개발을 위한 5자 협약과 맞물려 가야의 캐릭터,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연계 개발하게 되었고, 2017년 10월 김해 허황후 신행길 축제에서 제작 발표를 겸한 콘서트에 이어, 2018년 2월 소향뮤지컬시어터에서 60분 분량의 쇼케이스 공연을 올렸다. 그것이 ‘가야의 노래’의 시작이었다.



교내현장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융합공연

동서대학교 LINC+사업단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이번 작품은 기획에서 공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공연을 위한 총 제작비는 운영을 했던 교원창업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비 수주금액과 회사 투자 금액 등 7,000만 원과 링크사업단의 3,000만 원이 합해져 약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

가야의 노래는 그 속에 들어간 많은 시간과 비용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위해 함께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뮤지컬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 가야의 노래는 뮤지컬과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학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간인 교내현장시

스템(IFS, In school Field System)을 통해 만들어진 융합 공연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뮤지컬과 차순례 교수를 중심으로 학생과 졸업생이 각 배역을 맡아 열연해 주었고, 무대영상은 디지털콘텐츠학부 박영준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분석해가며 VR/AR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퍼포먼스를 구현했다. 또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가야의 의상은 패션디자인학과 양성원 교수와 학생들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짧은 시간 동안 밤을 새어가며 직접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가야의 노래는 잊혀졌던 가야의 역사를 복원한 동시에, 동서대 뮤지컬과와 우리나라 뮤지컬의 미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Insider Interview



뮤지컬과 오세준 교수

- <가야의 노래> 극본 및 연출
- 뮤지컬 <맘마미아> '빌 오스틴' 역
- 뮤지컬 <7번방의 선물> 연출

제작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서울과 부산 두 지역에서 동시에 연습이 진행되어 메인 캐스트들은 서울에서, 앙상블팀은 부산에서 연습하고 서울팀이 부산으로 가서 함께 조립하고 또 공연 임박해 부산팀이 서울로 올라와서 조립을 하는 형식이 되다보니 에너지도, 경비도, 효율성도 모두 분산되어 무척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웠던 기억은 뮤지컬과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동문 프로덕션의 출발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번 졸업예정자부터 2002학번 선배까지 모여 공연이 제작되어 수많은 이야기가 생겨 힘든 와중에도 보람 있는 축제였습니다. 사실 졸업예정자들은 학교 내에선 최고 선배로 자리 잡아 어깨에 힘 주고 다닐 만 했는데 작품 연습장에서는 교수님 급인 02학번 선배님이 계시니 막내 노릇 하는 모습이 학교 동문들끼리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 되었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이나 대사, 음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애착이 있는 장면은 제가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장면인데요. 극중 우륵이 호위무사 가야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우륵: 자네의 한 손은 칼을 쥐고 한 손으로는 원기를 들고 숨기고 있네. 지금 자네가 내 손을 잡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가야: 손을 잡으려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우륵: 그렇지. 그것이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라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그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대네.

음악은 모든 음악이 너무 좋아서 고르기 힘들 정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아문이 부르는 '바람이 전해주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작품의 창작적인 면에서,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적인 면에서 준비된 것에 비해 무대 기술 구현에서 제작비 여건상 제대로 된 시도조차 못해 본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제작비의 한계가 가장 큰 장애였는데요. 언뜻 보면 규모가 큰 행사 같지만 아직은 시연회 수준입니다. 투자규모나 제작의 규모가 상용화 버전이라고 할 수 없는 초라한 규모였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는 무리가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대기술적 표현들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장면의 무술 장면도 여건상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는 작품에 대한 평가가 이번 공연을 통해 평점 9.6 유료객석점유율 90퍼센트를 달성한 만큼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대 뮤지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은?

배우들의 경우 기본을 중시합니다. 가장 당연한 말이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본이 부족하데 당시에 유행하는 테크닉에 의지하는 배우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과는 다소 투박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계에서 동서대 졸업생들에 대해 대부분은 '참 잘 배워 나왔구나'라는 기본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기술적인 터치를 입혀 새로운 캐릭터로 변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스태프들은 창작자로서의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기술직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창작자로, 디자이너로의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뮤지컬'이란 무엇인가요?

뮤지컬은 시대가 변하며 그 그릇이 더 포괄적이고 형태가 유연해 졌습니다. 기존의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 음악이 있는, 드라마가 있는, 그리고 인간의 몸과 앞선 기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모여 있는 가장 진보한 표현기법입니다. 이제 좋은 뮤지컬은 작품이 막을 올린 순간에서부터 막을 내린 순간까지 아주 좋은 노래 한국을 들은 것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작비가 얼마인지, 배우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만으로도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뮤지컬과의 주요 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6월에는 4학년 한국 학생들의 공연과 중국 학생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전매대학교와의 합작뮤지컬과 설립 1기 학생들의 최종 성과 공연이라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3학년 한국·중국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8월에 여름 방학 스터디그룹 공연, 11월 4학년의 뮤지컬 졸업 공연, 3학년과 2학년 한국·중국 학생들의 공연 등 50회 가량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야의 노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뮤지컬계의 선배이자, 학과의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조급해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인내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득 찬 객석에서 보내는 뜨거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누군가는 먼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일찍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견뎌내고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면 일어나서 노래하세요. 춤추세요. 자신을 게으름 속에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견뎌내세요. 수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엄격히 자신을 관리하세요.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파이팅!

교육혁신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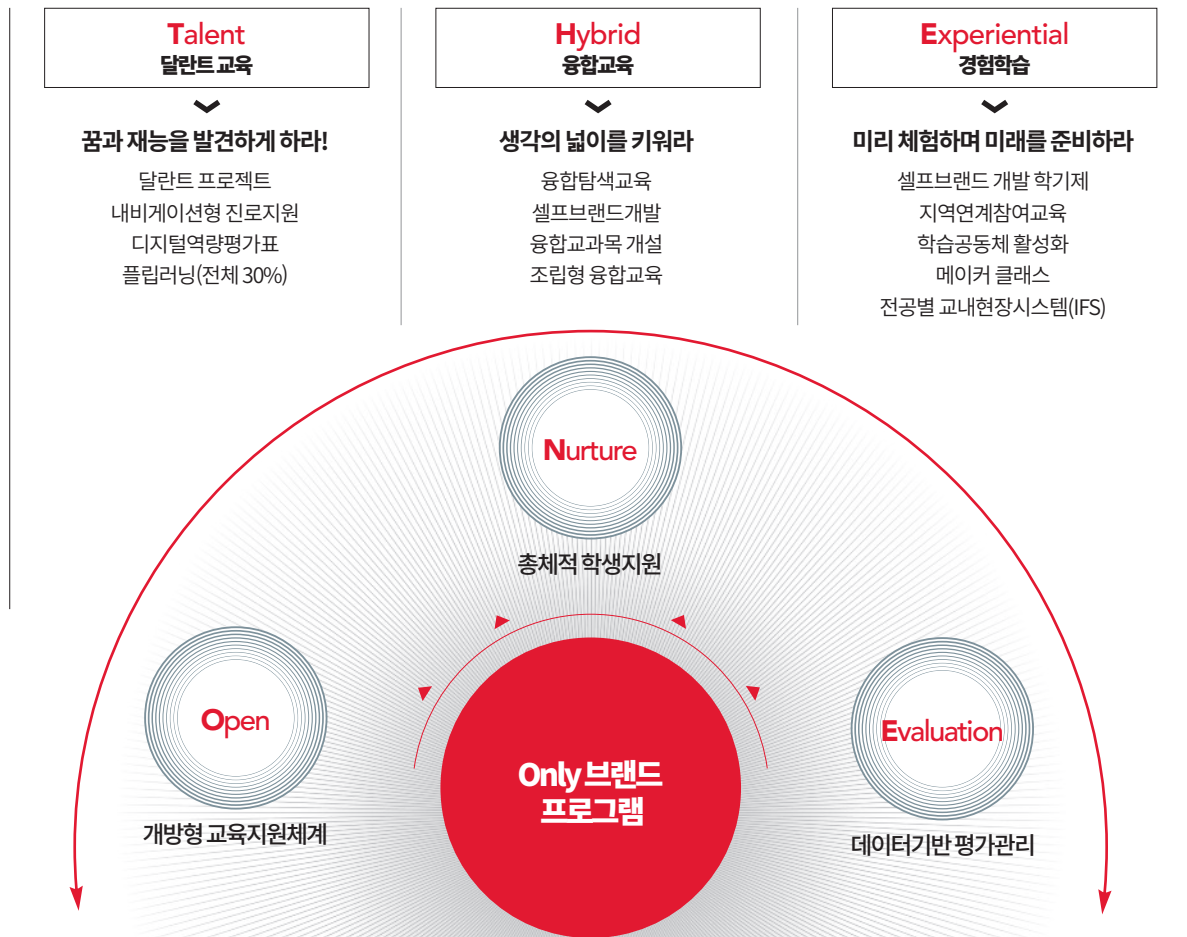
Office of Innovation and Education

세상 하나뿐인 '나'를 만들다 성치경 교수로부터 듣는 'T.H.E. Only O.N.E. 교육 제대로 알기'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미래형 교육의 첫걸음이다. 미래형 교육대학 동서대는 'T.H.E. Only O.N.E.'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동서대 'T.H.E. Only O.N.E.' 교육을 기획 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본부의 성치경 교수를 만나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수 및 학생들에게 적용되는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들어보았다.



T.H.E. Only O.N.E. 교육



교육혁신본부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육혁신본부는 여타의 교내 행정부서와는 달리 학부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로, 2019년 1월 신설된 부서이며, 뉴밀레니엄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본부의 발전방향은 교육과정 혁신, 교육성과 평가 및 관리, 비교과 통합관리, 교수·학습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혁신은 교육과정인증센터에서, 교육성과 평가 및 관리는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비교과 통합관리는 비교과통합관리센터에서, 교수·학습지원 강화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센터들은 각각의 업무 지원을 위해 신설한 부서입니다.

각 학과에서 T.H.E.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T.H.E. 수업은 무엇인가요?

T는 적응형수업인데, 수강학생 모두가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와 보충학습을 위한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하는 수업입니다. 형성평가를 통해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콘텐츠로 보충

학습을 하고 다시 재시험을 통해 기준점을 통과할 때까지 반복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대학 강의실에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가 끝나지만, 적응형학습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모두 제대로 알게 되는 수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 중 꼭 알아야 하는 핵심개념을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과목에 적절한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전공학문의 기초가 되는 과목 수업에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H 수업은 융합수업으로, 2명 이상의 교수자가 함께 코티칭으로 PBL (Problem-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교수자들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하고, PBL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지만, 일반적인 전공수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융복합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융합수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동서대만의 H수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만들어갈지가 숙제라고 봅니다.

E 수업은 강의를 듣고 시험 칠 때만 암기하고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



라, 실질적인 학습(Authentic Learning)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서로 협업하여 만들어보는 PBL(Problem-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전공에 따라 문제 시나리오 기반의 문제해결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중심학습(Project-Based Learn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서대의 PBL은 실제 현장과 동일한 교육 환경으로 구축한 공간인 교내현장시스템(IFS, In-school Field System)에서 진행되는 IFS기반의 PBL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구축된 IFS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의 미디어 아웃렛(Media Outlet)으로, 실제 방송사와 광고홍보회사에서의 다양한 직무들을 전공 수업 중에 경험하는 PBL 수업이 가능합니다. 대학발전계획에 따라 다른 전공에도 IFS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T.H.E.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학과 또는 전공은 어디인가요?

T 적응형수업은 보건의료계열과 화학공학부의 전공수업에서 많이 운영하였습니다. 의료계열 기초 학문과 미생물학, 화학 등의 전공수업 내용은 학생들의 완전학습을 목표로 하니까 적응형수업이 적절한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적응형수업은 29과목 35개 분반 수업에서 운영되었습니다. H 융합수업은 '식품영양학+운동처방학', '디자인학+레저스포츠학', '방사선학+작업치료학'의 융합으로 3개 과목이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부담은 컸으나 신학기에도 계속 융합수업을 하하겠다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E 경험학습 수업은 방송영상전공,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에서 많이 운영하셨습니다. PBL 수업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과에서도 골고루 많이 운영하였고, 41개 과목, 54개 분반 수업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2019년 2학기에 처음으로 학생의 자기주도형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셀프브랜드개발]이란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1학점, 3학점, 6학점, 15학점의 자율적인 학습경험을 교수님의 강의 수강 없이 사전 승인과 사후 결과 발표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11명의 학생이 신청하였고, 전원 교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수업에 대한 교수님과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T.H.E. 수업 모두 학생들의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먼저 적응형수업은 형성평가와 재시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과 온라인콘텐츠로 보충학습이 가능했던 점이 좋았다는 학생들의 평이었습니다. PBL로 진행한 융합수업과 경험학습은 팀별 과제의 완성을 위해 수업시간 외에도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이 문항만 만족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융합수업은 타과 학생들과 함께 타과의 전공지식도 배우고 팀별 과제를 해결하

자기주도형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E> 수업에 대한 학생 후기

면서 상호보완이 되고 좋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과제 분야와 수강생 비중에 있어서 쏠림현상이 있어 불편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PBL 경험학습은 팀원과 협업하는 것과 교수님의 알찬 피드백을 통해 실무를 경험한 수업이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고, 더러 수업방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보고서 작성이 부담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수업계획서 외에 작성을 부탁드린 문건이 많다 보니 어렵고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와 기획연구처에서 재정지원 외에도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근래 대학평가에서는 규정 등에서 어떻게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의 실질적인 사후조치 실적까지 챙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일들을 생략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T.H.E. 교육을 통해 가장 변화가 되길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반면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일까요?

T.H.E. 교육의 목표는 결국 전공 교육을 통해 꼭 배워야 할 것을 실질적으로 잘 배우고, 졸업 이후에 요구받을 융복합적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을 학습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공 수업 중 소수의 몇 과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대학혁신을 위해 전공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며, 단순한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를 포함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 2학기 전공에서,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루어내신 T.H.E. 수업의 성과들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동서대의 교육혁신이 충분히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T.H.E. 수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분명히 설명드리어서 수업 진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대상으로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교수법 연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는 문제시나리오를 포함한 문제해결학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실질적인 학습 결과물이 도출되는 프로젝트 중심학습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클래스를 활용한 원격수업 형식의 특장을 통해 T.H.E. 수업이 어떤 수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 자기주도형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셀프브랜드개발] 과목은 계획서와 주차별 보고서 작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방식을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스스로 한 학기에 수업과 연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서 스스로 알아가고 배울 점을 찾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좋기도, 두렵기도 했지만 한 학기 동안 셀프브랜딩을 진행하는 그 시간과 과정 자체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할 배움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모든 걸 둘이서만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롭게 배우는 것들로 발전해나가는 제 자신을 느끼게 될 때 매우 부듯했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틀이 잡혀갈수록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던 만큼 큰 배움을 얻어가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혼자서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갈피를 못 잡아 생기는 막막함에 머무리를 짓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의 약점을 셀프브랜드 교과목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과목을 들은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과목을 개설해주시고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김○○

짧지만 길었던 한 학기동안 하나의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날들을 생각해보면 부듯하기도 하고 조금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0-2학기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주제로 다시 SDB 교과목을 신청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싶습니다.

안○○

새로운 교과목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교과목과는 다르게 누군가가 정해준 틀 없이 조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서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셀프브랜드 개발이라는 좋은 교과목에 신청해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배워보지 못했던 학습에 대해서 팀원들과 스스로 공부해보면서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힘을 맞추어 주제에 대해 한 학기 동안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



Compute, Converge, Create!

동서대가 만들어갈
소프트웨어융합교육의 새로운 진화



DSU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출범

동서대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선도대학으로 또 한 번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출범'하고,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서대의 행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 공학 인재들의 꿈을 더 높고, 더 넓게 펼쳐주기 위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동서대 소프트웨어교육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6개의 별

소프트웨어
학과

창의 융합적 사고와 상호협력력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정보
보안학과

부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 포렌식 기관, 보안 기밀협회 등 다양한 보안업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중심'의 교육을 수행한다.

정보통신
공학과

정보통신이론, IoT 기술 및 센서를 통해 얻은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IT융합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과 이론을 교육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낸다.

컴퓨터
공학과

다양한 컴퓨터 응용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해 국가 IT기술의 중추적 분야에서 활동할 경쟁력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한다.

게임학과

게임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에 강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게임엔진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AR/VR 분야의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

최첨단 교육환경(할리우드 아티스트의 원격강의, 1,400여 개 동영상 강좌 보유한 톨교육센터, VR/AR장비, 300여 PC작업실)에서 스토리 보드, 레이아웃, 캐릭터 제작, 시각효과(VFX) 등의 과정을 교육한다.

시작

변화

도약

공학교육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동서대의 첫 걸음

동서대는 그 뿌리부터 '소프트웨어공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91년 동서공과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1992년 개교한 동서대는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독일, 스웨덴, 미국, 뉴질랜드 등에 위치한 세계적인 공학 중심대학들과 협정을 맺고 교류를 시작했다.

특히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공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손꼽히는 독일 '베를린공대(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를 비롯해 IT강국 핀란드의 '오울루대학(University of Oulu)'과 일찌감치 교류를 시작해 박사과정 등 공동학위제를 운영해왔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다양한 정부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를 이끌어 왔다. 대표적으로 유비쿼터스 IT사업단, 게임분야 RIC사업단, 지방대학혁신누리사업단, BK21사업단 등이 있다. 이 중 2006년에 선정된 '2단계 BK21사업'과 2008년 선정된 '게임분야 RIC사업'은 각각 약 40억 원, 168억 원을 지원받는 등 그 규모가 상당했다.

BK21사업은 교육부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동서대의 '첨단 영상콘텐츠 창작기술개발 사업팀'과 '무선센서네트워크 응용 U-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팀'이 선정됐었다.

지역혁신센터(RIC)사업에는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이 선정돼 72개 협력기업과 함께 아케이드 게임 산업 장비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137억 원

스마트산업적용형 소프트웨어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원규모(5년)
국제적 산학협력을 통한 영상산업 도시 육성사업단 지원규모(5년)

NO.1

산업계 관련 대학 평가 최우수 대학(정보통신/소프트웨어/게임)

시작

변화

도약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으로 AI와 SW 선도대학의 발판 마련

시작부터 차근차근히 소프트웨어 선도대학으로의 명성을 구축해온 동서대에게 확실히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2019년 9월 27일 동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돼, 앞으로 6년간 10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AI와 SW 교육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W중심대학’은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교육을 강화해 SW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SW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동서대는 AI와 SW 분야를 주도하기 위해 ▲SW융합대학 설립(컴퓨터공학부와 디지털콘텐츠학부 통합) ▲AI심화트랙(AI공학, 빅데이터) 신설 ▲SW중심학과 입학정원 16% 확대(225명⇒260명) ▲SW특기자전형(24명) 신설 등 교육체계를 혁신해가고 있다.

또한 SW전공자 ‘AI 123+Course(AI기업 현장실습 1회, AI프로젝트 2건, AI핵심교과 3+) 인증제’를 통해 연간 AI 전문가 123명 이상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AI콘텐츠, AI디자인공학, AI헬스케어 등 6개 특성화 SW연계전공을 운영해 누구나 인공지능을 복수전공할 수 있게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코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원받는 국비는 AI·SW교육 인프라 구축비, SW전공 학생 장학금, SW융합전공 학생 장학금, SW특기자전형 장학금, 해외 교육 및 인턴십 활동비,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및 초·중·고학생을 위한 SW교육비, 지역 유망기업을 위한 SW분야 산학 공동연구개발사업비 등에 사용된다.

SAP

핀란드, 미국, 일본, 중국과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K-MOVE

미국, 일본 해외취업 프로그램

시작

변화

도약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출범식 갖고 인재 양성 위해 대항해 시작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동서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출범이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2019년 11월 19일 U-IT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21세기형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항해를 시작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그 동안 쌓은 토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공학교육 모델을 만들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장제국 총장은 “이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수진, 그리고 든든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조건까지 갖추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학생들이 상상력과 배움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다양한 SW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1세기형 융합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공학교육이 세계적인 선도모델로 발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일 부산시일자리경제실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박종현 소장, 문화재단지디복원가 박진호 소장, 카카오키즈 김정수 대표의 특강도 함께 진행되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의 꿈을 격려했다.

● ‘SW중심대학’ 사업 문미경 단장

“동서대는 ‘SW중심대학’ 사업 중에서 ‘사회와 산업을 위한 문화콘텐츠 AI·SW융합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서대는 AI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과 부산의 문화콘텐츠 산업특성을 잘 반영해 문화콘텐츠 AI·SW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대학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운의 꿈을 이끌어줄 취·창업 프로그램과 성과 취·창업으로 가는 첫 걸음, DSU

대학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꿈의 범위는 넓었다.

사회에 나갈 때, 이렇게나 많은 기준과 제약이 있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 대신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디로 취업할 건지”로 질문의 형태까지 바뀌어버린다.

동서대는 우리 인재들이 꿈에 제약 없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있는 탄탄한 교육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국내 취업은 물론, 해외 취업과 창업까지 학생들의 가능성에

보다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는 동서대의 노력들을 살펴보자.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국내외 취업의 무한동력이 되다

취업

-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수상
- '2019 청년드림대학' 선정
- 'K-Move 스쿨' 5개 과정 선정
- '2019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동서대는 2017년 기준 취업률 66.9%(대학알리미)로 매년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대만의 7대 진로역량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업현장 등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노동부 주관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기관 선정으로 지역 청년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에 주력해 온 덕분이다.

2019년 11월 7일 본격적인 채용시즌에 앞서 대학일자리센터는 '2019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채용박람회에는 부산신항만, 동신모텍 부산공장,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유니온, 토탈소프트뱅크 등 부산·경남 지역의 16개 기업과 13개 회사가 참여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지역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기업설명회, 대학생청년고용정책인지도 조사 등도 마련됐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이 120여명 이상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가자들의 기대를 높였다.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서대의 노력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동서대의 취업 프로그램과 사업들은 해외 취업에 더욱 특화되어 있다. 대표적 사업이 해외취업연수사업인 K-Move 스쿨이다. 동서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K-Move 스쿨을 통해 총 439명을 교육시켜 해외에 보내 글로벌 무대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 3개 과정, 하반기에 2개 과정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동서대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최대 규모의 K-Move 스쿨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해외로 향한 취업의 문은 더욱 활짝 열렸다. 2019 상반기에는 미국 산업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과 미국 무역물류프린티어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동서대가 이렇게 해외취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의 강점인 IT·디자인·국제화 분야와 연계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동서대는 2019년 12월 '2019 청년드림대학 평가'와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 선정되었다.

동아일보·고용부·마크로밀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어떤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강한 면모를 보였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런 대학들에 '청년드림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선정하는 평가다. 동아일보는 신문에서 올해 동서대를 비롯해 전국 12개 대학을 청년드림대학 명단에 올리고 취업·창업에 경쟁력이 높은 대학들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2019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은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이 대학의 진로개발과 취·창업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청년드림대학·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등 130여 대학에서 108개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진로지도, 취업지원,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대학이 수상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중 해외취업분야는 동서대와 군산대 단 2개 대학만이 선정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동서대는 체계적인 해외취업 로드맵을 통한 성공적인 해외취업 사례와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이 수상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2019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수상





청년취업의 문을 넓혀준 '2019 청년채용박람회'

아이템 발굴부터 투자유치까지 청년 창업의 허브가 되다

창업

- 'DSU Make 창업경진대회' 개최
- 'Fab-Lab' & '현업 기술 멘토' 지원
- '2019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 진행
- 모의 클라우드 펀딩
- 창업 동아리 적극 지원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루트나 도움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동서대는 '창업경진대회',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을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어 매년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는 동서대가 2015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의 창업장학금을 교비로 지급하며 비전 있는 창업인재들을 키워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는 약 6개월간 창업캠프 및 스타트업 특강, 팀별 1대1 멘토링, 시제품제작에 이어 마지막으로 모의 클라우드 펀딩까지 진행해 나아가 조사를 통한 시장성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진행되는 실전 창업의 축소판이라고 볼된다. 동서대는 2019년 6월 '찾아가는 학부설명회'를 열고, '2019 실전창업체험 프로젝트' 참가팀을 모집한 뒤 수준

별·맞춤형 창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준비 활동(1단계)과 창업체험 활동(2단계)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27일~28일 진행된 'DSU Make 창업경진대회'에는 재학생 33개 팀(110명)이 참가해 완성도 높은 비즈니스 모델과 시제품을 내놓으며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끌어올렸다. 특히 동서대 메이커 스페이스인 'Fab-Lab'과 '현업 기술 멘토들'은 우리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탰다.

11월 13일에 열린 'DSU Make 창업경진대회' 수료식에서는 모의 클라우드 펀딩 결선을 진행하였다. 6개월 동안에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3팀은 자신의 아이템에 대해 IR발표를 진행하고 수료식에 참석한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에 평가를 받았다. 그렇게 탄생한 실전창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꿈과 자신감을 심어준
'실천창업체험 프로젝트'

업 체험 프로젝트의 최종 우승자의 영광은 '벌써 12시'팀에게 돌아갔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도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의식에 불을 붙이고 있다. 동서대 LINC+육성사업단은 1월 21일 '2019년 창업동아리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019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전체 창업동아리 41개 팀 중 39개 팀이 발표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인기상 1팀을 선발해 상을 수여하였다.

전폭적인 대학의 창업지원에 힘입어 동서대 내에서 수준 높은 비즈니스 모델과 시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동서대는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교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DSU 취업특



동서대의 대표적인 취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교육, 여대생특화교육, 취업역량강화교육, 현장실습교육, 해외취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특히 6개월간 교내 교육 후 6개월간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과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K-Move스쿨이 유명합니다.

동서대 취업 사업이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동서대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탈무드(TalMUD)'라는 동서대만의 진로지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TalMUD)'는 '재능을 찾고(Talent Search)-동기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Motivation)-진로를 준비해서(Undertaking)-목표를 달성한다(Dream comes true)'는 뜻입니다. 동서대의 모든 진로취업프로그램은 이 탈무드체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목표인 취업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동서대의 현재 국내 취업률은 어떤가요?

2017, 2018 2년 연속 부·울·경 지역 나그룹 취업률 1위 /
2015~2018 4년 연속 전국 나그룹 대학 해외취업 1위입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나요?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학생이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센터를 찾아오시면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이 친절하게 진로에 대해 안내해 주고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줍니다.

현재 동서대의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 2016년 청년 해외진출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 2018년 K-Move스쿨 트랙 II 시범사업단 운영기관 선정(4년제 대학 유일)
- 2019년 청년드림대학 선정,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선정(해외취업분야)
- 2013~2019년 7년 연속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 4년 연속 전국 나그룹 대학 해외취업 1위
- 2017~2018년 해외취업 연수과정 및 운영기관 평가결과 2년 연속 A등급

동서대만의 해외취업 로드맵을 알려주세요!

1학년 때는 해외취업에 대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2~3학년 때는 준비를 해야죠. 이때 해외취업동아리도 가입해서 공부하고 교과목도 들으며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외국어'예요! 취업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는 필수입니다. 4학년이 되면 실천 해외취업프로그램인 K-Move스쿨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서대는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K-Move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해외취업지원사업인 'DSU해외취업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국가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Interview with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장주영 소장

“한국, 나아가 아시아 디자인의 미래를 묻다”

ADCF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ASIA DESIGN CENTER FOR FUTURE

2019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아시아
미래디자인
연구소
확장 이전



2017년 문을 연지, 3년 만이다. 짧은 기간 안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이하 아미연)는 변화의 기점에 섰다. 아미연이 '한국문화 기반의 창의적 디자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Gamification 연구'로 한국연구재단 주관의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교육연계형)'에 선정되어 6년간 최대 1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이에 아미연을 대표하는 장주영 소장이 느끼는 책임은 매우 크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자인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아미연의 성과가 앞으로 아시아 디자인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장주영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이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미연의 설립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이하 '아미연')에서는 '아시아와 한국, 부산'이라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디자인 기초연구를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현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류문화 보편성으로서의 한국적·아시아적 문화가치의 탐색과 세계 문화와의 소통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7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활동은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생산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고 또 디자인 실행에 응용하는 '지식의 생성과 사용의 순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자식의 생산, 교육, 저장, 확산의 역할을 해나가며 한국과 아시아 디자인연구의 글로벌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서구의 디자인 이론과 한국 아시아 디자인 교육은 어떻게 다르며, 왜 달라야 하나요?

우리의 디자인 교육현장에서는 서양의 보편적인 디자인 방법론에 더하여 우리의 문화를 담은, 그리고 우리 지역 사용자 특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디자인 교육은 서구 중심의 사고법과 방법론의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디자인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보편적인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생산자의 관점에서 해결점을 제안해왔는데, 이제 각 지역의 문화 맥락적인 배경과 사용자의 진정한 필요를 간과한 채 해결점을 제시한다면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다른 문화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은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생소한 한국, 생소한 아시아가 아닌지, 오히려 서구식 사고방식과 문화가 더 친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 대한 인지(認知)는 자존감의 형성에 도움이 되며, 문화정체성의 규명을 통해 자문화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이 형성됩니다.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의 추구야말로 우리가 세계 디자인을 선도하는 위치로 나아가고, 나아가 우리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대 이후 서구 주도의 디자인이 만들어놓은 여러 폐해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도 한국과 아시아적 가치를 탐색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한, 저희 대학과 같이 글로벌 캠퍼스를 지향하는 대학에서, 몰려오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한국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을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한파 인재로 양성하여 귀국 후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적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자에 회자되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개념에서 중요한 핵심은 '공감(empathy)'인데 이는 해당 문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와 한국·아시아의 디자인교육은 내용상으로나 접근 방법으로도 다를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 한국, 아시아'라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서 세계로 나아갈 때 진정한 독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 교육을 통하여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미연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꼽아주신다면?

첫 번째 '지식의 생산'은 <디자인인문연구회>와 <지역문화연구회> 활동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디자인에 관한 기초연구를 이어가며, 학술지 논문 게재와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 간의 자발적인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SIG(Special Interest Group) 연구회>를 공모하여 매 학기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종합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북경이공대, 고베공대, 대만운림과기대, 동서대의 4개 대학원생 간의 공동연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역할은 한국문화 기반의 신규교과 3과목을 개설하였고 교재를 편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작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연구소사업'에서 '교육연계형'으로 선정되어 6년간 12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식의 저장'의 역할로서 디자인대학 교수님 전원의 참여로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25년 아카이브_hi25 historymaker>라는 방대한 역사자료집을 편찬하여 동서대 디자인교육 25년과 더불어 지역의 디자인교육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연구소와 디자인대학원의 활동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 봄·가을 학술대회의 <연구집> 발행과 대학원에서 생산한 논문들을 엮은 <아시아디자인아카이브> 및 <아시아디자인저널> 등을 편찬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식의 확산'의 역할로서는 먼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 혁신을 위한 디자인 결과물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DSU-DESIS Lab)을 오픈하였습니다. DESIS(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는 같은 뜻을 가진 세계 유수 디자인대학의 네트워크인데, 현재 'DMZ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와 '감천문화마을 프로젝트' 등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좌·객원교수님들을 모시고 <2019 동서국제디자인워크: Design as Changemaker>를 개최하여 특강과 대담, 전시회 등을 이끌며 국내외 디자인담론을 확산하였습니다.



그 외 <2017 DIFE 디자인 혁신과 기업가정신 포럼>을 미국 퍼듀대학교의 연구재단과 디자인진흥원과 공동 주최하였고, <2019 ISDC 국제 서비스인노베이션디자인 학술대회>와 <학생워크숍>을 주관하였습니다.

그 외 전시회 기획 및 도서 출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일상문화 1_식: 부산의 맛과 멋>의 단행본 출판과 전시회의 개최, 그리고 2019년 12월 중국의 art china news에 상세하게 보도되기도 한 <중국청년 작가전> 등을 대표성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9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문화 기반의 창의적 디자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Gamification 연구'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교육연계형'에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교과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총 3과목을 제안했는데, 신규교과 개발과 기존교과의 개선 및 MOOC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서, 첫째, '한국예술과 문화 기반의 디자인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것과 둘째, '디자인교육에서의 창의성' 연구, 그리고 셋째,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의 연구가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디자인 교육'을 게이미피케이션 방법으로 교육하는, 동서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교육콘텐츠와 교수학습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연구와 교육의 연계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미래 한국디자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소가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전임연구원 채용과 이에 따른 연구공간 확보 규정에 따라 뉴밀레니엄관의 2층으로 이전하여 넓고 쾌적한 가운데 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연구공간과 회의공간이 구분되어 연구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서고 공간이 마련되어 지속해서 도서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본교의 특화된 디자인도서관과 연계하여 디자인 관련하여 구하기 힘든 다양한 국내외 단행본과 정기간행물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관련 도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연구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지역성 기반의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과 한국과 아시아적 가치 확산의 비전에 공감하신 교수연구원들과 전임연구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힘든 일인 줄 알지만,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로 마음을 모아 이 일에 동참해주신 동료 교수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본부의 큰 지원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이 다른 대학과 다른 차별점과 강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1992년 설립 당시부터 디자인 특성화대학으로서 도전적인 실험과 혁신을 거듭하며 현재 6개 루트로 구성된 디자인학부와 패션디자인학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서대학



교 디자인대학의 차별점을 집약한다면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 한명 한명의 'The Only One'의 가치의 추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신이 주신 각각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의 숨은 달란트를 발휘하도록 모든 교수님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성'과 '유연성'이 특징인 루트 교육이라는 특별한 체제 속에서 교수진들의 애정 어린 밀착 교육은 동서대 디자인대학의 큰 특징점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각자의 숨은 끼를 찾아 개성 있는 자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To the World'라는 슬로건입니다. 애향심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시민으로 용기 있는 글로벌 도전을 하도록 교육하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DS(Global Design Society)를 통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와 자신감의 고취, 그리고 동기부여 등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대학의 GDS는 '1인 1글로벌'을 목표로, 미국, 이태리, 호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디자인분야의 심화학습, (공동)워크숍, 현장체험, 전시회, 문화체험 등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MOVE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해마다 40여 명의 디자인 대학 졸업생들이 미국에서의 인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을 볼 때 학생들의 디자인 역량과 경쟁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요즘 세계 각지에서 졸업생들의 활약상들이 들려오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아시아미래연구소의 2020년의 주요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선 연구재단의 사업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연구소 이전과 체제정비를 마무리하며 보다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분과별로 장단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소로서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계획입니다.

올 한해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2월 중에 <한글의 창제원리와 한글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봄 학술대회에서는 공자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신시대의 중국 디자인 교류전시회>의 개최와 인문사회연구소 사업팀의 <중간성과공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가을 학술대회에서는 <태극 구·탄생>이라는 고베예술공과대학에서 기획한 전시회의 한국 순회전과 <디자인인문연구회>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미연은 56개국의 299개 회원대학이 활동 중인 디자인 연구와 교육의 유일한 국제적 협회인 Cumulus의 회원교로 추천되어, 6월 중순에 로마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입회식을 거쳐 국제학술행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 하순에는 북경이공대학에서 열리는 <국제종합프로젝트> 워크숍에 대학원생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 <2019 동서국제디자인워크: Design as Changemaker> 자료집 편찬을 준비 중이며, 이코 밀레오레 석좌교수님 저서의 한글 번역서도 출간 예정입니다. 그 외 정기간행물인 뉴스레터와 연구집들은 예년과 같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저희 아미연은 지역의 디자인 연구와 디자인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 아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의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계의 고수, 동서인들의 공모전 부수기

프로공모전러가 이야기 하는 도전과 성공 1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여정

패션디자인학과 14학번 김지순



다수의 실패가 만든, 다수의 성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은 다소 진부한 감이 있지만, 성공을 위한 과정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조언은 없다. 이는 다수의 실패가 주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주저앉지 말고,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을 밀거름 삼아 노력한다면 언젠가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뤄낸 패션디자인과 김지순 학생의 이야기가 꼭 이 명언과 닮아있다.

김지순 학생은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과 부산의 굵직한 패션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휩쓸며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에 수없이 도전해온 다른 공모전에서 얻은 실패의 경험들 덕분이었다. "3학년 때 참가한 공모전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좌절감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내가 어떻게 공모전에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감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다 실패를 밀거름 삼아 다시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요."

대학생들의 스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수상경력'이다.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기업은 대학생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인재를 얻을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검증받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 대한 청년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다. 동서대에는 화려한 입상 경력을 가진 공모전 특화 인재들이 많다. 그 비결은 창의적인 사고와 전문성 양성에 집중하는 학과 특성화 교육 시스템과 학생-교수 간의 탄탄한 유대관계, 학생들의 성실함에 있다. 각종 공모전에서 동서대의 이름을 빛낸 학생들과 그들의 성과를 살펴보자.

그는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3학년 겨울 방학에는 혼자 학교에 나와 계속 재킷(Jacket)을 만들었다. 공모전에 자주 떨어지면서 찾아온 슬럼프를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4학년 때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낙담하지 않고 나를 믿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일으켰고, 4학년이 되던 2019년에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공모전(이하 제로웨이스트)'과 '부산텍스타일디자인대전(이하 텍스나일대전)' 모두 1~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과 아이디어, 노하우가 있었기에 자신 있었다. 제로웨이스트는 남겨지는 원단과 재고품, 버려진 옷을 재사용하는 것이 주제였다. 그는 '신발'이라는 차별성을 두고, 3학년 때 크리에이티브 루트반의 '업사이클링 수업'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이어진 텍스타일대전에서는 3학년 때 작가로 활동할 때 만들어 놓았던 작품을 활용했다. 당시 와이어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하여 컴퓨터로 입체감과 라인들을 리터치한 후 패턴으로 옮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가 도전한 일 중 어느 것 하나 '우연한 성공'은 없었다. 실패하면 실패한대로,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온다

김지순 학생은 동서대에서 보낸 4년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학생으로서 학업은 기본이었고, 무엇이든 최대한 많이 다니면서 보고 경험하려 했다. 2학년 때는 개인사업자가 되어 옷, 폰케이스 등을 판매했고, 3학년 때는 부산과 서울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4학년이 되어서는 그동안 한 작업물들을 모아 회사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무엇을 하든지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지순 학생은 지나온 4년을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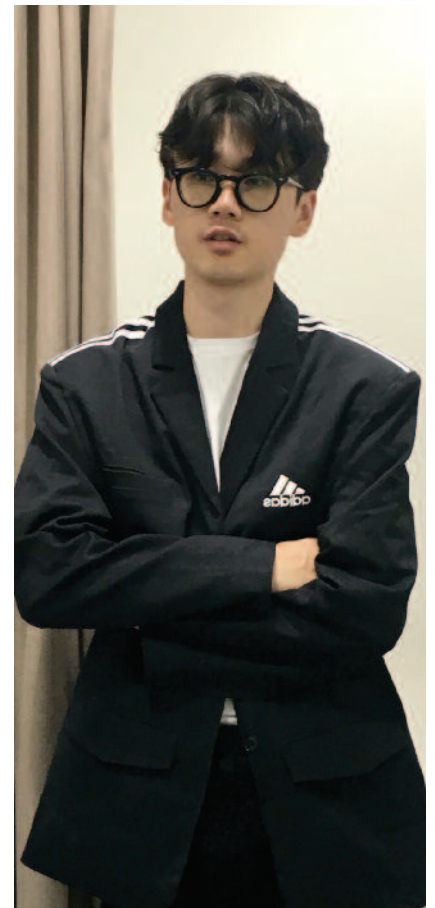
한다. "동서대는 저에게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공모전이나 수업,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준 거죠. 교수님들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특히 3학년 때 들었던 '크리에이티브 루트반'은 그에게 더욱 특별했던 수업으로 남아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틀에 박힌 수업이 아닌 다양한 창작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업을 통해 교내 창업동아리에 참여했었는데, 실무를 하고 다양한 업체와 컨택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4년의 시간동안 잘 준비한 덕분인지, 그는 유명 패션 안경브랜드로부터 함께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아, 현재는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취업에 상관없이 무대역상이나 화보의상 협찬을 해주거나, 브랜드나 아티스트의 팝업을 하게 될 경우 오브제 제작에 참여하는 등 쉽이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의 진짜 꿈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패션디자이너가 목표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거에 너무 간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걸 만드는 데 흥미를 느끼는 거 같아요. 그게 오브제는 패션이든 새로운 것을 항상 제시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현재 '꿈'입니다."

꿈이 단지 직업이 아닌,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김지순 학생의 말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을 했는지 짐작케 한다. 뽀히 틀에 박힌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늘 준비하고 노력해온 김지순 학생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공모전 필승전략!

1. 수업시간에 했던 작업물 응용
2. 다양한 방법으로 시야 넓히기 (인스타그램, 서울, 해외 둘러보기)
3. 공모전에서 떨어진 이유 분석
4. 교수님과 끊임없는 피드백
5. 타인의 작품으로부터 배울점 찾기

수상경력

- 2017년 SOKI 소키국제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특선
한국패션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특선
- 2018년 SOKI 소키국제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우수상
부산 스타트업IR발표 부분 장려상
- 2019년 제로웨이스트 패션디자인공모전 대상
제23회 부산텍스타일디자인대전 최우수상
중앙패션디자인콘테스트 본선진출, 장려상



프로공모전력이 이야기 하는 도전과 성공 2

크리에이터가 되어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방송영상학과 13학번 임재혁

공모전 준비의 시작은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여기 밥 먹는 시간, 잠 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모전에 제대로 '미친' 학생이 있다. 동서대 내에서 소위 '공신(공모전의 신)'이라고 불리는 방송영상전공 임재혁 학생은 대학생활의 8할을 공모전으로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임재혁 학생의 '공모전 인생'의 시작은 군 전역 후부터 시작됐다. "제대하고 촬영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식 레스토랑에서 먼 샐는 아르바이트를 4개월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길로 주말에는 지역 행사에 가서 무작정 찍어온 영상들을 평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밤새 영상 편집에 매달렸어요." 그러다 복학 후 친구들과 과 참가한 CJ헬로비전 영상공모전에서 2등을 하

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공모전의 길에 들어선다. 그때 공모전을 통해 상금을 많이 받았으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임재혁 학생은 2014년 '헬로비전 영상공모전'부터 2019년 '롯데관광 크루즈 서포터즈 챌린지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하 크루즈 영상 공모전)'까지 20여 개의 공모전 입상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며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 공모전이 왜 진행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공모전의 성격이 CSR(사회공헌)인지, 마케팅의 일부인지 등 주최 측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 주제의식을 가지고 기획해야 하는데, 쉽게 말

해 주최 측이 클라이언트고, 우리는 제작사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거 같아요."

최근 참가해 대상을 받은 크루즈 영상 공모전을 통해 임재혁 학생이 말하는 공모전 수상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영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부터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선 타 전공과의 협업이 필요했다. "완성도 높은 제작물을 위해 광고홍보학과,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관광경영학과 전공자가 모은 크루즈 관광의 사례와 전문지식을 활용해 광고홍보학과 전공자는 '현재 크루즈 여행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담은 기획서를 만들었고, 저는 그 의도를 영상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중장년층에 치우친 크루즈 여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젊은 고객층을 끌어 모아야 한다



는 의도로 제작된 영상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도전할 용기를 알려준 동세대, 도전 자체로 아름다웠던 공모전

도전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동세대는 임재혁 학생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주었다. 그는 SAP, 국제기술봉사단 같은 해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공이나 꿈과 관련된 특강 등 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용기를 얻고,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전공수업에서 주어진 과제뿐만 아니라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자신을 한 뼉

더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미국 SAP는 그에게 특히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준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3학년 2학기 때 미국 SAP에 참여했어요. 기본적인 어학 연수뿐만 아니라 한 학기동안 팀 프로젝트로 미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할리우드는 왜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이 되었는가’로 주제를 잡고 할리우드 곳곳을 다니며 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지인들을 인터뷰하고, LA필름 스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제 할리우드의 전반적인 영화제작 워크 플로우와 인력 양성과정을 직접 보면서 세상을 정말 넓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재혁 학생은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졸업 전 마지막 대외활동으로 도전한



공모전 필승전략!

1. 공모전 주최의 목적을 파악하라.
2. 타 전공 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라.
3. 2~3주에 한 번씩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공모전 일정을 체크하라.
4. 교내 프로그램 참여로 경험치를 쌓아라.

수상경력

2014~2017년

- 서부산 여행 UCC 공모전 대상
- CJ 헬로비전 25초 영상제 최우수
- 지스타 UCC 공모전 대상

2018~2019년

- 주한아일랜드대사관 My Irish Dream 영상 공모전 우수
- 군산신영시장 홍보영상 공모전 최우수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제2회 대학생 일본 UCC 공모전 대상
- CJ 헬로 영도봉래시장 관광홍보 UCC 공모전 최우수
- 제18회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공모전 우수
-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 우리문화유산 UCC 우수
- 롯데관광 크루즈 서포터즈 영상 콘텐츠 대상

한화그룹 ‘드림플러스 트래블 크리에이터 4기’에서 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그는 현재 서울 63빌딩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행 관련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제작 업무를 하고 있어요. 최종 선발된 15명 중 유일하게 수도권 외 지역 대학 출신이라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실무 위주로 짜여진 동세대 방송영상전공의 커리큘럼 덕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이제는 ‘크리에이터’로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 임재혁 학생. 다양한 기회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욱 반짝반짝하게 빛날 그의 미래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지는 듯하다.

동서대 학생들의 내공이 빚어낸 성과

빛나는 아이디어와 탄탄한 기본기!

그저 그런 실력으로 공모전이라는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1학년 때부터 쌓아온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 거기다 동서대라는 든든한 서포터즈까지 있으니 동서대에서 많은 공모전 수상자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에 참가해 1~3등을 모두 차지한 동서대 학생들

미래 유망산업, 광고·IT 분야 인재들의 두드러진 활약

- '실종아동 찾기·예방' 공모전 장관상
- 제2회 대학생 평화광고 공모전 대상
- Deep Racer League 1·2·3위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수상의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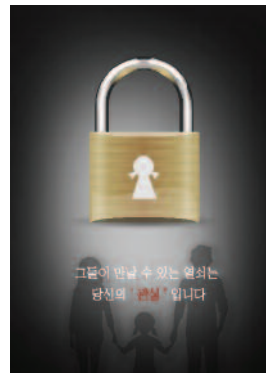
반드시 인간의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광고와 IT분야는 미래사회에서도 꾸준히 그 인력을 필요로 한다. 동서대 학생들은 광고와 IT업계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실력자다.

광고홍보학과 4학년 안유정 학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19 실종아동 찾기·예방'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과 국민과 함께 실종아동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포스터와 동영상 부문으로 진행됐다. 안유정 학생은 포스터 부문에 자물쇠의 열쇠 구멍을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열쇠라는 콘셉트의 작품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열쇠는 당신의 '관심'입니다'를 제출하여 이 대회 최고상을 받았다.

이어 방송영상학과 이용진, 권태호, 강현준, 배연솔 학생이 칠곡군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회 대학생 평화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해 동서대가 또 한 번 광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의 소중함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의 의미를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된 유엔군을 기억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자 영상광고·인쇄광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상식은 10월 11일에 열리는 국내 유일의 호국·평화 축제인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진행되었다.

동서대 학생들 자율주행차 경주대회 상위권 점령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이 총동원되는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이 화두로 떠오른 요즘 동서대가 9월 5일 해운대 벅스코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인 'Deep Racer League'를 개최했다. Deep Racer 리그는 AWS(Amazon Web Service)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인 Deep Racer를 이용한 경주대회를 말한다.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에는 동서대, 경성대, 동명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등 10개 대학(14개 팀)이 참가했다. 경주 결과 ▲1위 ITC팀(지도교수 박수현) ▲2위 Naughty Kids 팀(지도교수 이석호) ▲3위 달리라 더 달리라팀(지도교수 문미경) 등 1~3위를 동서대 학생들이 모두 차지했다. ITC팀의 기록은 국내 2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산클라우드혁신센터, AWS코리아 관계자들도 크게 놀라워했다.



실종아동 찾기·예방 공모전 장관상 수상작 자율주행차 경주대회 'Deep Racer League'

예술적 감각과 실력이 만나 탄생한 작품들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3팀 수상
- 대외 페스티벌을 휩쓴 애니메이션 및 VFX 영상 트랙
-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 금상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작 'Safety Smell Sign for Animals'

디자인 융합교육의 결과

동서대는 디자인과 디지털 콘텐츠, 영화 및 공연예술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인만큼 유독 예술분야의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의 수상 비율이 높다.

2019년 11월 10일 '제54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동서대 학생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포함해 Winner에 2팀이 선정되는 등 총 3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동서대 학생이 3회 연속 수상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디자인대학 진영주, 김수빈, 컴퓨터공학부 김경환, 장지훈 학생의 동물들을 위한 냄새 표지판인 'Safety Smell Sign for Animals'가 차지했다. Winner에는 디자인대학 방준영, 김재형, 컴퓨터공학부 오송이, 박효진 학생의 'Golden Time Drone', 디자인대학 허수지, 이소림, 컴퓨터공학부 최다훈, 김경환 학생의 'Multi Parrot Tap'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정된 작품 모두가 LINC+사업단 특성화분야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자인과 컴퓨터공학전공의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것. 21세기형 융합인재를 선도하는 동서대의 교육비전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술과 예술의 조화로 이뤄낸 성과

디지털콘텐츠학부 애니메이션·VFX 트랙 학생들 역시 대외 페스티벌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졸업 프로젝트와 수업과제물을 여러 대외 페스티벌에 출품해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한 것이다. 애니메이션트랙 4학년 졸업 프로젝트인 'What the hell!'이 11월 8일 열린 2019 부산청년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영상VFX트랙 4학년 졸업 프로젝트 'Lego Race'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1월 2일에 개최된 2019 천안국제초단편영화제(CIESFF)에서는 학생들이 수업결과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Onions'가 페스티벌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어 12월 5일에 열린 국내 최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관으로 열리는 Rookie award에서 애니메이션트랙 4학년 졸업 프로젝트인 'Chir-earth'가 기술부분3D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순수 공연예술 경연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8월 25일 열린 제24회 전국 대학생마당놀이축제에서 연기와 전통연희연구회 시우터가 '수영아류'를 선보여 금상을 수상했다.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탈춤, 놀이, 농악 종목에서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동아리의 400여 명이 참가해 그 경쟁이 치열했다. 시우터는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수영아류의 가장 화려한 장면인 '길군악'(모든 과장의 배역, 악사, 팔선녀 등 군중을 이루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 장면을 삭제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각종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수상한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



전국 대학생마당놀이축제에서 '수영아류'를 선보여 금상을 수상한 연기와 학생들

도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글로벌 역량

- 대한민국 청소년 중국어 대회 1·2위
-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부산대회 우승
- 국제기구 - MICE 커리어 페어 대상·우수상
- 해운항만 국제 논문공모전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대거 수상

탄탄한 외국어 실력에 인문학적 소양까지 겸비

‘세계를 뛰어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동서대. 이로써 동서대에는 세계로 열린 넓은 시야를 갖춘 글로벌 인재가 많다.

외국어는 기본이다. 작년 9월과 11월에 각각 열린 일본어대회와 중국어대회에서 어김없이 수상자가 배출되어 그 저력을 입증했다. 9월 29일 신라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부산대회’에는 일본어학과 4학년 고운정·허가현, 3학년 김지수 등 3명이 한 팀으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디베이트(Debate) 대회는 대학별로 신문기사나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어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준 높은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동서대와 동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가해 ‘한국의 대학은 모든 성적평가를 교원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옳은가 그른가’라는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나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1월 23일 전남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청소년 중국어대회’에는 중국어학과 3학년 원지후·좌현빈 학생이 대학생(성인) 부문에서 1위(광주광역시장상)와 2위(전남대총장상)에 오르며 동아시아지역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 높은 실력을 대외에 보여주었다.

세계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DSU인들의 식견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도 정확했다. 관광학부 학생들은 9월 27일 개최된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3학년 김진일(팀장), 권하정, 전슬기, 조은지 학생이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방문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3학년 장서연 학생은 유럽인들이 여행 때 가장 선호할만한 트레킹 코스를 기획했다.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에 출품한 작품들은 관광학부 임경환 교수가 2019 1학기에 개설한 ‘여행사 경영론’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결과물이다.

11월 8일에는 동서대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국제교류협력사업단이 주최한 제5회 해운항만 국제 논문공모전 및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원생 부문과 학부생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학부생 부문의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모두 국제물류학과 학생들이 휩쓸어 화제를 모았다. 학부생 부문 대상은 2학년 김지우, 김지원, 서예지 학생의 ‘항만 사이버 보안 평가요인에 대한 사례 유형 및 AHP(상대적 중요도)분석’ 논문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3학년 유재호, 지건욱, 이재성, 박기준, 추성민 학생의 ‘IMO 2020 환경규제 대응방안-저유황유-’, 우수상에는 4학년 안정배 학생의 ‘부산항의 크루즈선 환경오염 실태와 저감방안’ 논문이 선정되었다.

동서대 20대 청춘들은 지금도 쉼 없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중 공모전 참가는 이제 그들에게 필수코스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실력과 꿈을 시험해볼 수 있는 공모전에는 앞으로도 많은 동서인들의 도전이 있을 것이다.



해운항만 국제 논문공모전 및 국제학술대회의 최고상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수상한 국제물류학과 학생들



대한민국 청소년 중국어대회에서 어김없이 실력을 발휘한 중국어학과 학생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나,
중국어학을 전공한 학생이 미국의 변호사가 되리라고 말이다.
이는 2016년 동서대를 졸업한 차영혜 동문의 이야기다. 그는 대학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도 한 적 없던 루트를 스스로 개척해 자신이 꿈꾸던 '변호사'라는 꿈을 이루었다.
2012년 입학부터 시험에 합격한 2019년까지 꿈을 위해 투자했던 그의 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미국 워싱턴 D.C주 변호사 합격한 차영혜(중국어학과 12학번) 동문

**“나만의 길을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용기를 갖길!”**



변호사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

2012년 동서대 중국어학과 입학(일본어학과 복수전공) →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이수 → 2016년 졸업 → 2016년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진학(3년 과정) → 2019년 미국 워싱턴 D.C 주 변호사 시험 합격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내 꿈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를 졸업한 차영혜라고 합니다.

동서대 졸업 후 저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동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에 진학했습니다. 영어로 수업·토론이 이뤄지는 이 대학원에서 3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대학원 졸업 다음해인 2019년 미국 워싱턴 D.C 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 글에서 짧게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입학 당시 한국·중국·일본 3개국을 순회하며 공부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학부생활 4년 내내 진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색다르고 귀중한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지 언어로 수업하고 한중일 3개국 대학생이 합숙을 통해서 연속성 있게 교류하며 그 속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해갈등이나 가치갈등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훈련을 거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인 중국어와 일본어 외에 영어라는 언어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이후 대학원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학부를 마쳐가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미국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험을 했기에 이후로는 그 외의 것을 접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이 저에게 가장 알맞은 곳이라는 결론을 내리

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학부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제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충돌 발생 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예시로 들며 강조하였고 덕분에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들은 기대했던 대로 제가 접할 수 있는 세계를 확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생활 자체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대학원이 영어로 수업·과제·토론을 진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매일 여러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 수업 전 날 미리 판례를 공부해야 하는데 첫 학기에 저는 한 과목의 판례를 단 한 개 읽는 데에도 밤을 새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도전에 맞본 변호사 합격의 기쁨

마지막 관문인 변호사 시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학원의 3년 과정을 마치면 12월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다음해 2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한국 소재의 대학원이므로 시험을 치기 위해 미국

으로 가는 여정과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과 주변의 기대로 인해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실력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매꿀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모두 듣고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을 모두 사 모조리 푸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이 준비를 하였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린 결과 첫 번째 시험에 바로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변호사로서의 길은 로펌, 인하우스, NGO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직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비록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는 하들을 넘었지만 이후 더 어렵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도전은 개개인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후 앞으로의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부족한 저의 글이지만 동서대 후배님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 항상 준비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녀온 선배들이 들려주는 미국·중국·일본 SAP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 SAP 직접 가보니 어땠나요?

동서대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중 SAP의 인기는 단연 독보적!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생생한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까지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지원 아래 미국(호프국제대학), 중국(중남재경정법대학), 일본(일본경제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SAP-USA

글.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 17학번 **장주은**

Before: 고등학생보다 못한 영어실력 ➡

After : HIU 학점 4.3의 우등생

동서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을 해보자!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20대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몇 가지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을 하면서 '미국 SAP'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미국 가기 전 CBT 성적이 300점대로 영어실력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외국인들과 대화는 물론이고 고등학생들보다도 문법 능력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네 실력으로 절대 미국에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 영단어를 최대한 많이 암기했고 외국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기본 회화 문장을 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2주 동안은 수업내용을 듣는데 꽤 고생을 했습니다. 최소한 외국인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과제정도는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런 기본회화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과제를 하고, 예습을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영어수업 3주째부터는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였고, 변화하는 제 모습이 신기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4개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의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영어로 개인 과제, 팀 과제, 발표, 시험 등을 치고 학기 최종 학점으로 4.3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성적은 받기 힘든데, 미국 대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은 이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에서 4개월의 공부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외국인 교수님과 가벼운 일상생활 이야기와 농담은 물론이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화 실력이 늘었습니다.

SAP 학생 최초로 학교생활과 인턴경험을 동시에

2019년도 1학기 미국 SAP의 50명 기수들 중에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인턴 경험' 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동서대학교의 교수님으로 현재 미국 HIU에 계신 이정애 교수님의 소개로 학교에서 40분정도 걸리는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한인가정상담소)에서 2개월 정도 인턴경험을 가졌습니다. 미국 SAP프



**“An opportunity is not to come,
but to catch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다”**



로그래밍 생긴 이후로 학교생활을 하며 인턴경험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LA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이민 한인 가정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돕고 어려운 이민 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와 가정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인 '청소년상담심리'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이었기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면접을 본 이후에 인턴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한인가정상담소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교통비만 왕복으로 하루 5~6만 원씩, 한 달에 교통비만 30만 원 정도가 들었기에, 금전적으로 혼자 부담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때 금전적인 고민으로 기회를 놓쳤다면 저는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상담예약, 행사보조, 상담프로그램 기획 등을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에서 배운 전공지식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일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 love for me'라는 미술 및 모래 상담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데, 한인가정상담소에 계신 상담사님이 완성된 기획안을 살펴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개월의 인턴경험이었지만 제게는 전공분야에 있어 원동력과 거름이 되어준 경험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담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고, 한국에 없는 상담프로그램과 행사도 참여하면서 전공분야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SAP 프로그램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고 저는 매일 다짐을 합니다. '꼭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아직 SAP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회를 잡아 꼭!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대 학생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오는 기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발로 뛰며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낯선 도전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잠시일 뿐이고 도전을 던진다면 나에게 '성공'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20대의 뜨거운 열정으로 다양한 도전에 희망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SAP-CHINA

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중국어학과 17학번 김수현



“이루고 싶은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김수현(두번째 줄 오른쪽 두번째) 학생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해가 바뀌고 저희 동서대학교 SAP동기 20명의 학생 중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성공적으로 모두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번 19학년도 2학기 중국 SAP 학생대표를 하면서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9월, 학교에 도착해서 분반고사를 치고 자신에게 맞는 반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며 4개월 간 열심히 수업 들으면서 중국어 실력이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여가시간에는 광구광장, 한지에, 장한루, 탄화린 등 우한의 변화기를 직접 걸으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10월에는 국경절 연휴가 있어서 휴식을 취하며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며 쉬는 학생들도 있었고, 여행을 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11월 초에는 중간고사가 있었고 충분한 연습, 복습을 통해 시험기간 때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잘 준비했던 것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것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우한대학교에서 외국인 축제 한마당이 열려서 각 나라의 학생들이 부스를 설치해 자국의 음식, 전통 옷을 팔거나 전시를 했고,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신년을 축하하는 축제에 저희 한국 학생들도 참가했는데, 한 달간 준비한 중국 노래 ‘一帶一路(belt and road)’와 한국 노래 ‘불장난’(블랙핑크)을 불러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우리에게 남은 큰일은 기말고사였기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12월 말 모든 과목의 시험을 다 끝내고 12월 30일에는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수료식에서 학생 대표로서 연설을 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어 더

욱 뜻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모두 마치고 저는 ‘학업 우수상’, ‘개근상’, ‘우수 반장상’ 총 3개의 상장을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앞에서 이끄는 자리는 많이 해 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 자리가 얼마나 책임감이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인지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되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4개월 동안 외국인 친구 사귀기부터 연습과 복습을 통해 수업 내용 90% 이해하기, 한 달에 한 번 중국영화관 가기, 여행가기,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까지 목표의 대부분을 이뤘기에 뿌듯합니다.

끝으로 4개월간 함께 했던 중국 SAP 동기들, 중남재경정법대학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 동서대학교 SAP 관련한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SAP-JAPAN

글.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17학번 최양선

“새로운 모험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동서대학교에 입학하면 반드시 '일본 SAP'에 도전하겠다는 저의 바람대로, 합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합니다.

2019년 9월 2일 SAP동기들은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에 도착했고, 경제대학교 선생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앞으로 생활하게 될 기숙사에 도착하였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이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인생에서 쉽게 겪어보지 못할 일 이기에 설레는 마음을 가득 품은 채 저희의 일본 유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각자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을 듣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과 상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정 수업 같은 경우는 상·하반 학생들이 같이 듣고, 모든 수업이 일본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상·하반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속한 하반의 수업은 기초적인 문법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조차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4개월간 정말 많은 어휘를 익히고 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 과가 끝날 때마다 듣기, 문법, 한자, 독해 등 '수시시험'을 쳤습니다.

공부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제대학교 일본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함께 다자이후 산책을 하거나, 미술관을 관람하고 명란젓 만들기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SAP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본경제대학교 축제'도 한일교류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화에 자신감이 생긴 저는 여자기숙사에서 친구를 사귀어 보자라는 용기를 내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고, 다행히 그



일을 시작으로 6명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친구이자, 저의 일본어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반 적응기간인 9월과 10월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반복되는 수시시험에 부담감이 정말 컸습니다. 특히 시험 점수에 대한 좌절감이 가장 컸는데 그 이유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교육방식과 채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교수님들께서는 수시

험을 통해 단기간에 일본어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신 현지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서대 학생 신분이어야만 가능한 'SAP' 어학연수. 포기하면 다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합격을 하여도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생각하여 포기하지 말고 꼭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문화를



동서대에서는 매해 11월, 세계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뜨겁게 달구는 'International Culture Night'이라는 행사가 펼쳐진다. 2019년 11월 22일 소향아트홀에서 어김없이 그들의 뜨거운 축제가 열렸다.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 30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일본경제대학 초청무대 ▲국가별 문화공연 ▲참가자 간담회 및 사은회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문화공연에서 학생들은 개별국가 팀 혹은 혼합국가 팀으로 참가해 전통춤, 노래, 연주 등을 선사했다. 베트남 학생들은 전통 무용,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노래와 춤, 인도 팀은 'Bollywood Dance'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중국 학생들은 'Mongolian Dance'와 '玉人舞'를 보여줬다. 필리핀 팀은 춤과 음악, 멕시코 팀은 음악,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선사했다. 한국·일본 연합팀과 인도네시아·베트남 연합팀, 한국 학생들은 K-Pop 공연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K-Pop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인기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이번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국가별 문화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무대로 올라와 춤과 음악으로 공동무대를 연출하면서 아름다웠던 시간을 마무리했다.



한 자리에서 즐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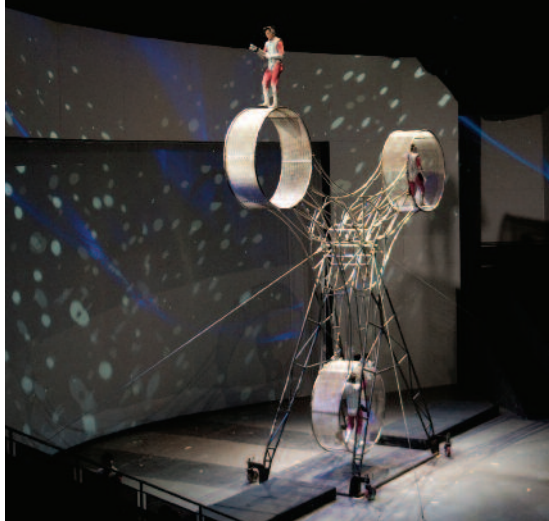


동서대 1학년 재학생 100명이 2020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대륙의 웅장한 기운'을 느끼고 돌아왔다. '2019학년 2학기 D-MAP 상하이 동계연수'를 통해 서인데, 중국 제2의 도시 상하이에서 유구한 그들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와 생활, 그리고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국제적인 시야를 넓혔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1학년 학생들에게 3박 4일의 기억은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원동력과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D-MAP 상하이 동계연수 3박 4일

**니하오!
중국에서 직접 본
그들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





你好



연수비용 전액 학교에서 지원

D-MAP은 1학년 신입생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꿈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재학생 100명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중국 상하이(上海)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국제적인 견문을 넓혔다. 이번 연수를 위해 박성미 민석교양대학장, 이동운 민석교양대학 교학부장, 김종필 종합홍보실장, 정주연 교수 등 교직원 6명과 여행사 직원 6명도 동행해 현장에서 연수를 지도했다. 연수비용은 전액 목적성 장학금(교비)으로 지원되었다.

연수 전날인 1월 7일에는 주중대사를 지낸 뒤 동서대 신정승 석좌교수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 정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 이날 이동운 교학부

장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탐방'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상하이 연수 첫날에는 푸둥공항에 도착한 뒤 임시정부청사와 신천지(상하이 최고 쇼핑거리)를 방문해 우리의 옛 역사와 눈부시게 발전한 상하이 모습을 직접 관찰하였다. 이어 둘째 날에는 자매대학인 상해공정기술대학을 방문해 대학 곳곳을 둘러보고 김종기 명예교수로부터 'The Story of China'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셋째 날에는 주가각(상하이 베니스), 청나라 우체국, 성황묘, 방생교 등 유구한 중국의 역사와 생활상을 접하며 학생들은 문화의 다양성과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상하이 연수를 마친 뒤 1월 14일에는 학생들의 연수경험 발표와 시상식 및 종강식이 열린다. 한편 지난 여름방학에는 재학생 100명이 베이징을 방문해 D-MAP 연수를 받고 시각을 넓혔다.



세상을 향한, 좁았던 나의 눈을 뜨이게 하다

이연주_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광고홍보학과 1학년

● 중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복잡한 사회, 미세먼지 등 인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직접 다녀온 중국은 내 선입견과는 매우 달랐다.

첫째 날 서커스는 보는 내내 심장이 튀어나와 손 위에서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낄 정도로 스릴 넘치고 신기했고, 둘째 날 상해공정기술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신 김종기 교수님의 특강은 다른 의미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놔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중국에 있으면서 경험한 일들을 차례로 설명해주셨는데, 교수님의 절 방문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교수님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적힌 절의 현판을 보고 “10년 후가 아닌 5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셨다. 이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는데, 나는 10년 후는 고사하고 당장 1년 후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 쳐야 하는 시험, 놀 거 리만 생각하며 살던 나를 반성하며, 삶의 태도도 고쳐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 날 목이 꺾이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본 경극도 놀라울 정도로 입으로 내는 독특한 소리와 몸짓이 뇌리에서 내내 떠나지 않는다.

3박 4일 동안 상하이 탐방을 하면서 문화의 차이도 정말 많이 느꼈다. 식사 시에 찬물은 마시지 않고, 뜨거운 차와 물을 마시며 느끼함을 달랜다는 점과 느린 식사속도는 한국과는 너무나 정반대였다. 10가지가 넘는 요리가 하나씩 천천히 나왔고, 배가 부르는데도 계속 요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더 놀란 건, 길과 식당에서 담배를 거리낌 없이 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길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했다. 특히 쓰레기통 주변에 먹다 남은 음료수병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점에선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듣고 본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번 중국 연수를 통해 다양한 학과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어 좋았다. 수업 듣는 것 외에 딱히 하는 게 없었던 나로서는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외의 사람들은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해를 돌아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세계는 넓고, 내 세상은 너무나 좁았다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어떤 강점으로 살아남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이렇다 할 강점이 없어 걱정이 많지만 학교생활과 그 외의 것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힘이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 상하이 탐방기



글로벌 인재로 향하는 첫 단계에 진입하다

전율희_ 국제통상물류학과 국제물류학전공 1학년

● 중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를 꼽자면 바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다. 평소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임시정부청사 방문에 너무나 기대가 컸다.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의 중심이었던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난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됐다.

생각했던 것보다 임시정부 건물은 규모가 컸다. 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던 것이 인상 깊었다. 임시정부에 가니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라는 글이 적힌 현판이었다. 타국에 와서 한글을 보니 반가운 것도 있었고, 먼 타지에서 고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내부에 들어가면 당시의 집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형들이 있었고 모형 중에는 김구 선생님이 계셨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흉상과 태극기들 그 원편에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역대 지도자들의 초상화도 같이 걸려 있었다.

집무실 외에도 임시정부 요인들의 과거 독립운동 행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어서 너무 신기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잊혀져간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는 사실에 조금 마음이 무거웠다. 임시정부를 관람하면서 지금은 지나갔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이며 오히려 계속해서 교육하고 인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의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상해 박물관 관람도 큰 감동이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불상과 도자기 등을 보며 그 디테일과 보존도에 감탄했고, 우리나라도 남아있는 유물들을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중국이 한국과 가까운 나라지만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더 멀리 있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문화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D-MAP을 경험하고 나니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대에는 D-MAP 외에도 SAP나 DAIP, K-MOVE 등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이 있는데, 2학년이 되면 전공 공부는 물론이고 다른 해외 활동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다.

D-MAP

The 6th ASIA UNIVERSITY FILM FESTIVAL

지난해 10월 아시아의 젊은 영화인들의 영화축제인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가 동서대에서 개최돼 열린 경합을 벌였다. 이번 영화제에는 아시아 각국 대학생들이 제작한 작품 상영과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모았다. 4일간 열린 이날 행사의 현장을 스케치하고 수상작들을 알아보자.



아시아 청년 영화인들의 한마당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

제2의 봉준호를 찾아라!



아시아 7개국 23개 대학 참가, 43편 작품 소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해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뚝 선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처럼 제2, 제3의 젊은 봉준호를 꿈꾸는 이들이 한데 모였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는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가 개막해 아시아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 영화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장이 마련됐다.

영화·영상 특성화대학인 동서대와 부산국제영화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7개국의 23개 대학에서 만든 43편의 우수 작품들이 소개됐다.

영화제 참여 대학으로는 동서대를 비롯해 한국의 6개 주요 영화 대학, 장예모와 첸카이거와 같은 세계적 거장을 배출한 북경전영학원,

중국의 방송영상 분야를 이끌어가는 전매대학교 등 중국의 8개 대학, 일본에서는 일본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등 5개 대학, 태국의 방콕대학, 베트남의 하노이연극영화아카데미, 인도네시아 제일의 사립명문대 페트라크리스천대학, 올해 부산영화제 개막작인 <말도둑들, 시간의 길>의 예를란 누르무함베토프 감독이 영화대학을 맡고 있는 카자흐스탄국립예술대학 등이다.

아시아 젊은이들이 바라본 세상을 영화로 표현

10월 1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소향뮤지컬씨어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각국 학생 감독들과 교수들의 레드카펫 행사에 이어 동서대 뮤지컬과에서 수학 중인 중국 교환학생들이 아시아 6개국의 영화를 소재로 한 축하공연을 펼쳐 많은 갈채를 받았다.

아시아대학생영화제에 출품돼 상영한 영화들

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이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닌 감독의 작품이나 상업 영화들은 다양한 통로로 접할 수 있지만,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다.

4일간 열린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에는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를 통해 학창시절의 고민들, 20대 청춘의 좌충우돌 사회 입문기,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기성세대의 문제점들을 테마로 다룬 작품들이 선보였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 출품한 동서대 영화학과 학생들의 작품으로는 장지혜 감독의 <매월기>, 최해슬 감독의 <시선>, 김소영 감독의 <임랑> 등이 있었다.





마스터 클래스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로 '소통'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10월 2일 열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제 70회 칸국제영화제 초청작이자 대중상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한 <악녀>(2017)의 박정훈 촬영감독이 영화 관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촬영 과정을 촬영전공 학생들에게 자세히 들려주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 감독은 칸국제영화제에서 액션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을 얻은 <악녀>가 CG를 배제하고 어떤 촬영기법으로 생생한 액션장면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외에도 영화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마련해 21세기 급변하는 아시아와 아시아 영상·문화를 주제로 알차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아시아 영화 대학 교육자 세미나(10월 3일), 아시아대학생영화제의 밤(10월 2일) 행사도 진행돼 영화로 소통하는 아

시아 대학 교육자와 젊은이들의 한마당이 연출되기도 했다.

아시아 각 대학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매년 성장

아시아대학생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대학들의 문화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영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여러 대학들이 협의체를 이루어 운영한다는 점이 영화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첫 번째 영화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영화제 개최국이 바뀌면서 주최하는 대학도 순차적으로 바뀌어 왔다. 제1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는 중국 전매대학교에서 개최됐으며, 제2회 영화제는 동서대가 주최했다. 이후 일본 니혼 대학교, 중국 베이징필름아카데미를 거쳐 2019년에 다시 동서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영화제를 진행해 오면서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협의체 대학들은 매년 영화제

를 주최하는 대학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아시아 영화의 보다 밝은 미래를 열망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마침내 아시아대학생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

특히 이번 영화제는 동서대 링크플러스(LINC+) 사업단이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영화제를 주관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제6회 아시아대학생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아시아의 젊은 영화학도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영화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학생·대학원생 부문 <시월>, <도둑의 죽음>

금상 영예

10월 4일 폐막 당일에는 심사위원단 및 참가학생감독 간의 간담회와 함께 시상식을 겸한 폐



막식이 진행됐다. 폐막식에서는 모두 11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 중 대학생 부문에서는 작품 <시월>(감독 마리아 하부리), 대학원생 부문은 <도둑의 죽음>(감독 천밍왕)이 각 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성지혜 심사위원장은 이날 심사평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 수준이 너무 높아 학생작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사를 했다. 내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의 작품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폐막식에 참석한 동서대 석좌교수 임권택 감독도 영화제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앞으로도 아시아대학생영화제는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영화 축제의 장을 통해 함께 어우러지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미래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관문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문화와 사랑, 마음을 나눈 교류의 현장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과 교류행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나눔은 행복이 되고, 행복은 공유되어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낸다.
동서대는 다양한 나눔과 교류 행사를 통해 함께 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공유하며 따뜻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겨울 외투 나눔

동서대에는 현재 1,2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그들을 위해 설날과 추석 명절 행사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학술 포럼, 문화교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복하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번 11월 20일 UIT관 6층에서 동서대 외국인

교육원 주최로 열린 '외국인 유학생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겨울 외투 나눔' 행사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의 일환이다. 한국에서 겨울을 처음 맞이하거나, 미처 겨울 외투를 챙겨 오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동서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기부한 외투 500여 벌을 무료로 나누어준다는 소식에 많은 유학생이 행

사장에 방문하였다.

500여 벌의 외투는 행사 5분 여 만에 동이 나는 바람에 늦게 참석해 아쉽게 기회를 놓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동서대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타지에서 외로움 없이, 따스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지역 문화를 통해 느낀 중국의 미래와 가능성

동서대는 수준 높은 중국어와 중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기관인 공자아카데미를 교내에 설치 운영할 정도로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 공자아카데미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과의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판다(PANDA)의 도시 청두(成都), 세계로 나아가다’라는 행사와 ‘중남민족대학 한국순회공연’이 그것이다.

9월 25일 열린 청두 행사는 쓰촨성(四川省)의 성도인 청두시(市)가 중국의 전통 문화와 쓰촨성 지역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기획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청두는 쓰촨성의 성도이자 판다곰으로 유명한, 인구 1,400만 명의 거대 도시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청두시의 초등학교와 중학

교, 병원, 청두시 비물질 문화유산센터, 청두시 예술공연단으로 구성된 문화체험활동공연단이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는 중국 무예, 전통회화, 서예, 수공예, 전통의학, 전통음식, 여행 등 중국과 청두의 비물질문화유산들이다. 청두시는 지금까지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그리스, 멕시코 등 20개 국가의 박물관, 예술관, 공자아카데미 등지에서 ‘판다(PANDA)의 도시 청두, 세계로 나아가다’ 행사를 전개해 현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중남민족대학교 예술공연단을 초청해 ‘중남민족대학 2019년 한국순회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서 중남민족대학 예술공연단은 중국민족음악, 무용, 무예 등 중국문화의 정

수를 보여줬다.

세부 프로그램은 민족합동무용, 여성 독창, 마두금 독주, 이족 3인조 무용, 무술, 태극 여성 3인조 무용, 피리 독주, 남성 독창, 사천극 변검, 장족 남녀단체 무용 등으로 꾸며졌다. 이날 공연을 통해 중국 희곡 예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사천극 변검을 포함해 중화 예술의 보배들이 소향아트홀 무대에서 펼쳐지자 갈채가 쏟아졌다.

중남민족대학 예술공연단은 음악무용학부의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단 단원들은 깊은 예술적 조예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연기력을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은 중국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보다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9 제4회 동서 교류제

9/18, 9am - 6pm

마이 리틀 교류제



동서교류제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및 생필품' 전달



매서운 추위에 몸과 마음까지 시려오는 겨울,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동서대는 연말, 연초마다 소외계층에게 이웃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매해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의 기부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10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치는 교수·직원상조회에서, 생필품은 총학생회에서 마련했다. 전달한 물품은 8kg 들이 김치 100상자(240만 원 상당)와 생필품 구입용 농협상품권(105만 원)이다. 김치는 주례2동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전달했다. 농협상품권은 주례2동 경로당 7곳에 나눠 전했다.

대학 내 기구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동서교류제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 15개 학부, 30개 동아리, 학교 행정부서가 참여해 각 기구의 이해와 소통, 학내 문화를 나누는 제4회 동서교류제가 9월 18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대학의 여러 부서와 학부, 학생자치기구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각 동아리·자치기구의 소개 및 소통 ▲학교 내 다양한 문화 교류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부행사로는 플리마켓·스탬프 투어, 동아리 공연, 총학생회 토크쇼, 대의원회 토크쇼, 학부별 소개 등이 진행됐다.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아시아대학총장포럼'에 참가한 장제국 총장

세계화를 위한 장제국 총장의 행보

리투아니아 국제컨퍼런스 &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참가

동서대의 세계화를 위한 장제국 총장의 발걸음에는 늘 거침이 없다.

장제국 총장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리투아니아 국제컨퍼런스'와 11월 25일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아시아대학총장포럼'에 각각 참석해 아시아, 크게는 전 세계 대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왔다.

리투아니아 외무부가 'Pivot to A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장제국 총장은 'The World in Transition: Moving toward New Normal'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다. 이 국제컨퍼런스는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많은 전문가가 모여 유럽과 아시아 간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후 장 총장은 리투아니아 A. Monkevičius 교육부 장관을 만나 리투아니아와 한국 고등교육기관들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자매대학인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빌뉴스 세종학당도 방문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리투아니아 학생들을 격려했다.

방글라데시 다포딜국제대학(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대학총장포럼(AUPF)에는 아시아 13개국 36개 대학이 참석해 '기업가 정신 교육과 경험학습의 미래: 아시아 경제에서 기업 생태계 발전의 결정요인'을 주제로 아시아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장제국 총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학생들의 기업이 정신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동서대의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 총장은 앞으로도 해외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초청받아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장 총장

DSU TODAY

2020학년도 대학입시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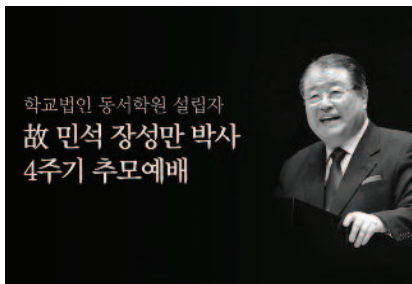


수시모집 경쟁률(정원내)은 7.05대 1, 정시모집 경쟁률은 3.18대 1

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동서대학교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2020학년도 동서대 입시를 총결산하면 수시모집 1만3,841명, 정시모집 2,043명 등 전국 수험생 1만5,884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019년 9월 10일 마감한 수시에서는 1,998명 모집(정원외 130명 포함)에 1만3,841명이 지원해 6.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68명을 모집한 정원내 경쟁률은 7.05대 1에 이르렀다. 간호학과(사회배려자)는 무려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31일 마감한 정시모집에서는 659명 모집에 2,043명이 지원했다. 동서대가 2020학년도 입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달성한 것은 그 동안 이룬 눈부신 성과에다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동서학원 설립자 민석 장성만 박사 4주기 추모예배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 민석 장성만 박사 4주기 추모예배’가 12월 5일 대학교회에서 열렸다. 동서대 교수와 직원들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동서학원을 부산의 대표 사학으로 키워 후세에 물려준 장성만 박사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장성만 박사는 생전 영상을 통해 동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앞에 있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션디자인학과 제20회 졸업패션쇼



11월 24일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생 31명이 ‘FILL UP’을 주제로 만든 90점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김순구 디자인대학장은 “오늘의 졸업패션쇼를 시작으로 앞으로 문화, 예술을 주도하는 글로벌 디자이너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것이다”는 확신을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학부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 개최



디지털콘텐츠학부는 11월 4일 센텀캠퍼스 소향뮤지컬씨어터에서 ‘제1회 3DFC(융합센터) Art Festival’을 개최했다. LINC+사업단 지원을 받아 진행된 Art Festival에서는 취업 간담회, 영상·아트 작품 전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힐링템(굿즈) 판매 행사가 있었다.

디자인학부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졸업작품전시회'를 열었다. 디자인학부 7개 루트(Route)는 디자인을 1층 갤러리와 International College 빌딩 갤러리에서 릴레이로 졸업작품을 선보였다.



'Busan Brain 21+ 사업' 우수 사업단 선정



'Busan Brain 21+ 사업' 성과공유회가 9월 27일 더파티 부산시청점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Busan Brain 21+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업단을 시상하는 자리였다. 이날 동서대 '고령친화산업 적응형 보건 의료 고급인재양성 사업단'이 2018~2019년 우수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작업치료학과, 6년 연속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



동서대 작업치료학과는 부·울·경 권역 작업치료학과 중 유일하게 6년 연속(2014~2019년)으로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100% 합격을 달성하였다. 작업치료학과는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 자율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관광 누비누비 서포터즈 성공적 마무리



동서대 관광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된 누비누비 서포터즈들은 12월 23일 성과 보고회 후 시상식을 가졌다. 단체 최우수상에는 하모니팀이, 우수상과 동서대 총장상은 부산의 온도팀과 엔조인 부산팀이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개인에서는 11명의 학생에게 각 기관장상을 수여했다.

LINC+ 캡스톤디자인 FAIR 성황리 개최

LINC+사업단이 11월 19일 뉴밀레니엄관에서 '2019 DSU LINC+ 캡스톤디자인 FAIR'를 개최했다. 올해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는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9 세상을 바꾸는 상상씨앗 공모전 시상식



동서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11월 5일 '2019 세상을 바꾸는 상상씨앗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상상씨앗 공모전의 총 상금은 1,250만 원에 이른다. 상금 300만 원의 총장상은 보수동 책방골목 지역 재생 아이디어를 낸 '신구의 조화'팀에 돌아갔다.

DSU TODAY

디자인대학 제2단계 국제화 비전 선포

Dongseo International Design Week 2019 개최



디자인대학은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동서 국제 디자인 위크 2019'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9월 3일에는 센텀캠퍼스 아트소향갤러리에서 이코 밀리오레 교수의 'Lightmorphing 전시회'가 열렸다. 둘째 날인 9월 4일에는 교내 문화센터에서 '디자인대학 제2단계 국제화 비전 선포식'과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비전 선포는 국내 'Top Ten'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 클래스 디자인 스쿨(Design School)로 웅비하겠다는 디자인대학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선포식에서는 디자인 국제교류에 큰 공헌을 한 규슈산업대의 구로에 가쓰히코 원로교수에게 공로패를, 권영걸, 이탈리아 이코 밀리오레, 대만 루딩방, 미국 마이클 프린스, 중국 구환시 등 세계적인 디자인 권위자 5명에게 석좌교수 또는 객원교수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Design as Change Maker' 주제로 5명 석학들의 특강(Design Talks)이 있었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의 힘과 역할에 대해 석학들의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9월 5일에는 센텀캠퍼스 아트소향갤러리에서 권영걸 교수와 이코 밀리오레 교수가 공공디자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탈리아와 한국 디자인의 두 거장에게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학생통합지원서비스 'Solution Desk' 개소

학생생활상담센터는 10월 16일 어문관 6101호에서 학생통합지원서비스 'Solution Desk' 개소식을 가졌다. 솔루션 데스크는 학생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 설치됐다. 문의전화는 320-4242.



부산시 평생교육 발전과

평생교육체제 지원 위한 협약



동서대와 부산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동남권 4개 대학(동명대, 부경대, 영산대, 동의과학대)은 12월 23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회의실에서 '부산시 평생교육 발전과 평생교육체제 대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명품정향우케익 산학협력 협정



동서대는 12월 5일 교내 글로벌룸에서 국내 최초 케이크 전문점인 명품정향우케익과 산학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서 두 기관은 현장실습 및 취업교육공동 프로그램의 운영, 상호 발전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특강 등에 적극 협력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캠퍼스아시아-아시아문화원 협약

동서대 캠퍼스아시아 사업단과 아시아문화원은 11월 13일 민석도서관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캠퍼스아시아 사업단과 아시아문화원은 양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학술정보 교류 등을 위해 이번에 협약을 맺게 됐다.



산학협력단, 가상현실(VR) 기반 헬스케어 전문기업 '세이'와 협약

동서대 산학협력단은 9월 4일 뉴밀레니엄관에서 '세이'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세이는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협약에서 두 기관은 2020년까지 부산에 VR 기반의 어린이 교육센터인 '브레인 VR키즈앤맘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서병구 교수, 대통령 표창

한국 뮤지컬 1세대 안무가로 뮤지컬 무대예술의 기반을 닦는데 공헌한 뮤지컬과 서병구 교수가 10월 30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임경환 교수, 2019 서울 관광 대상



서울시는 12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9 서울 관광인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발전에 기여한 22명에게 '2019 서울 관광 대상'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관광학부 임경환 교수는 개인 부문 서울관광대상(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홍배 교수,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



글로벌경영학부 김홍배 교수는 11월 26일 한국거래소가 수여하는 '제9회 KRX 증권·파생상품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파생시장 규제와 시장기능의 변화'라는 논문으로 이 상을 받았다.

엄미례 교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동서대 WISET 사업단 부단장인 엄미례 교수(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는 11월 7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2019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2019 지역인재육성 멘토상)을 수상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만나다

2019년 동서대는 'VISION 2030'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미래 대학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짧은 시간이지만 과연 그동안 동서대는 얼마나 그 비전을
이해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The Only One'이라는 인재양성 철학에 기반 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실질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형 대학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2019년 동서대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힘 없이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학생들의 실력은 쑥쑥 자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동서대는 다시 한 번 달릴 것입니다.
깨어있는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그 누구도 본 적 없고, 한 적 없는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만들어 가리라고 약속하겠습니다.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47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Korea
www.dongseo.ac.kr
T 051.313.2001~4